朝鮮日報 夕刊
二十三日(日)
本紙夕刊十二面

社說

日英會談進捗 —初志의貫徹을期하라—

一

지난 十五日부터 東京에서 開始된 日英會談은 四次의 會談으로 帝國의 根本的 要求條件인 原則問題를 正式으로 承認하게되어 帝國外交上 一大收穫을 엇게되엇다. 即 一、英國은 支那에서 日支間에 戰鬪行爲가 行해지고잇는 現實事態를 確認하고 一、英國은 日本軍이 그 占領地域內에서 그 安全과治安維持를 爲하여 各種要求를할것을 認하며 一、英官憲及 在支英國民은 支那側을 利하고 日本을 害칠 行爲를 行하지안을것을 諒解한다는것이다. 二十四日에는 日英兩政府가 共同聲明까지 發하게되엇스니 近來에드믄 快消息이라 안홀수업다.

二

그러나 以上은 原則問題이고 現地天津問題에 對해서는 來週初부터 開始하기로 되엇스니 이제꼿 樂觀할수는 업다. 即 帝國의 要求하는바는 一、程錫庚氏殺人犯을 無條件으로 引渡할것 一、租界內 反日及共産分子를 嚴重取締할것 一、租界內 反日分子의 無電使用을 禁止할것 一、聯銀券에 對한 協力을 實行하고 其他 通貨政策의 攪亂行爲를 하지안홀것 一、英領事館內에 保管中의 現銀을 引渡할것 一、租界內 支那側銀行、錢莊、商社等의 檢査取締에 協力할것等 日本軍의 生存上 絶對必須한 各種具體的 要求일러인데 英國이 이것들을 다 承認할가는 곳 밋기 어렵기때문이다 왜그러냐하면 英國은 老獪한 外交國이라 原則的으로는 三條件을 承認햇다 할지라도 具體的問題에 들어가 承認치 안흐면 結局 입때까지의 會談은 何等 效果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設使 具體的 問題에 들어가 租界內 反日共産分子를 取締하겟다 明言하고 聯銀券의 協力을 約束하고도 誠實히 行하지 안는다면 何等 意義가 업다. 況 英領事館內에 保管中의 銀을 引渡하라 하는것이라든지, 程錫庚氏 殺害犯을 無條件引渡하라 한다든지의 要求는 英國의 體面上問題를 들어서 承認치 안흐려할것갓다.

三

勿論 帝國의 態度가 强硬치 안흔것을 英國이 모르는바 아니오 또 英國이 武力으로써 帝國에 對할 準備가 업는것을 恨하지 안는바아니나 그러나 以上 要求를 다 承認한다 할것 가트면 天津 아니 上海、其他 支那에 잇는 租界는 勿論、支那全土에 扶植한 權益을 順次的으로 喪失하게 될것이오 이들의 喪失은 印度 南阿等植民地、自治領에 威信을 일허버려 動搖를 招致할 憂慮가 업지안타. 그러므로 이具體的要求를 容易히 承認하리라고는 생각키 어렵다.

四

그러므로 帝國으로서는 그初志를 貫徹할때까지 追及의 손을 멈추지 말것이니 이交涉에 當하는 政府및 現地當局은 交涉에 압서서 强硬히 要求를 主張 할지오 國民으로서는 政府를 鞭撻하여 英國에 國民的 輿論을 反映하기위하여 排英大會、國民大會를 開催하여 氣勢를 올릴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京城에서 全朝鮮排英大會가 開催되고 全國各地에서 同大會가 열리는것은 當然한 일이다.

日英間諒解成立은 蔣政權에 一大衝擊

事變處理도有利히展開乎

重慶政府가 日英會談의 結果를 보고 悲觀하는것이나 法幣가 暴落하는것이나 當然한 일이다.

平沼首相時局談

【金澤電話同盟】平沼首相은 二十三日午後 四時 葉山御用邸에 伺候 天皇陛下께 拜謁한後 有田、크레기會談經過와 結果를 委曲奏上 御下問에 奉答約一時間만인 午後五時御前을 退下다음 湯淺內府와 要談을 거듭하고 同五時四十分 金澤東屋旅館에 들어 時局談을 試하엿다.

東京會談도 한고개를 넘엇스나 아직現地問題交涉이 남어잇슨즉 安心할수는업다 그러나根本原則이 定해진以上 具體問題는 順調로히 進行될것이다 今番會談에서 가장 苦心한것은 原則을먼저 決定하기로 한點인데 이것은 我方으로서는 當然한順序를 밟은것이다 今番의原則은 支那全般에 亘하는 問題로써 天津問題에만 局限된것이아니다 이點은 英國도 잘알고잇슬것이다

一、英國의在支權益에 關하여는 英國이 日滿支의 互助連環關係를 認定한다면 그것이 東亞新秩序에 抵觸되지 안는範圍內에서 認定하여도 조흘것이다 일찌기日露戰爭直後 各國이 滿洲의 利權을 獲得하려할때 我方은 當時의 事情으로부터 어를 排擊하엿스나 今日은 그때와는 자못事情이 달으므로 어느程度까지 外國權益을 認定하여도 조타고생각한다

一、今番原則이 決定된以上 英國은 蔣政權에 對하여 이以上 크레디트를 設定하여 同政權을 援助하는일은 업스리라고 생각한다 그러함이 잇스면 今番에 決定된 原則으로부터 背馳되는 行爲라고 할것이나 法幣維持策도 講究치안는 狀態로 보더라도 그러할일은 업스리라고 생각한다 武器의 對支供給은 商人에 하는일로 어찌할수업다 크레디트를設定지안는 以上 蔣政權도 資金이 繼續되지못하여 自然武器供給이 斷絶되게될것으로 생각된다 如何튼 日英間에今番協定이 成立된것은 重慶政府에對하여는 큰衝擊이 될것으로 事變處理에도 有利하되리라고 밋는바 英政府로서는 今番會談에서 決定된 趣旨를在支官憲뿐만아니라 英國民에 對하여도 徹底시킬方策을取할것으로생각되는데 我方으로서는 이點을期待하고잇다

一、國內의 對英運動도 會談이今日과가치 進捗이된以上 非合法運動은勿論 政府의方針에 合致되지안는 運動은 當然取締해갈 方針이다 最近對歐方策에關하여 今番日英東京會談의 成否와 어떤關係가잇는듯이 보는便도잇는模樣이나 이며根本方針을 決定한以上 東京會談成否如何에不拘코 旣定方針대로 邁進함에는 變함이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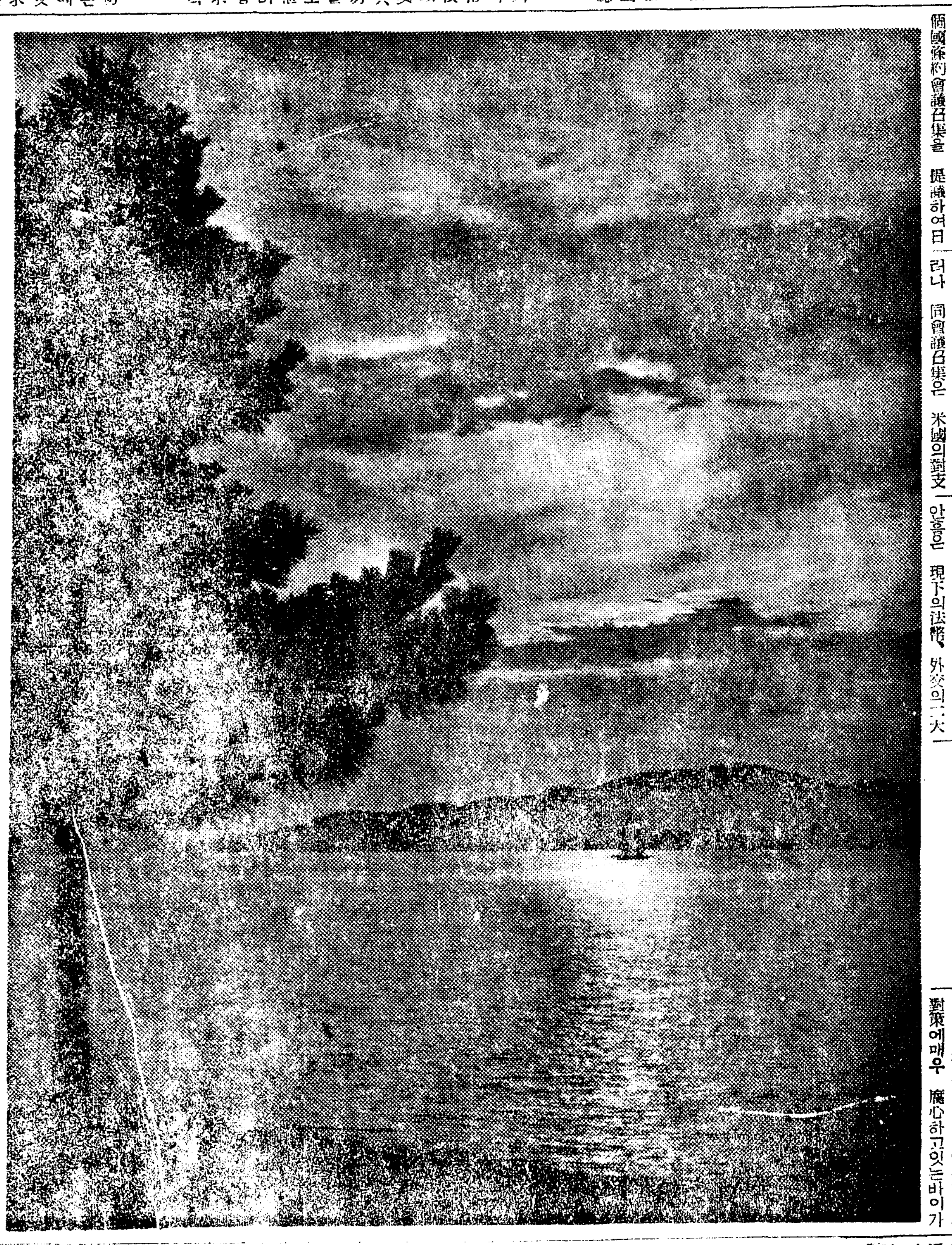
英國態度에 失望

支那、九個國會議召集企圖說

重慶으로부터의 情報에依하면 英國의 約變的態度에 失望落膽한 重慶政府部內에는 關係의一策으로서 關係各國에 向하여 九個國條約會議召集을 提議하여 日英協成立을 妨害하라는 소리가 노파지고 孫科、顧維鈞、胡適、王正廷等도 外交部에對하여 가는主唱의 建議를하엿다한다 그러나 同會議召集은 米國의對支態度가 자못消極的임으로 그實現은 困難하리라고보인다 이重大危機에 臨하여 蔣介石이 峨眉山에 滯留하여 重慶에 歸來치 안홈은 現下의法幣、外交의二大問題에對하여 當局이 何等有效適切한對策을 갓지못한것을 表示하는것이라하여 人心은자못不安하다

汪氏、全支各地 民衆反省促進

【上海二十二日發同盟】汪兆銘派에서는 所信을 披瀝하기 爲하여 지난九日의 라디오放送 十日의 中華日報復刊 第一號紙上에서 中國要人、內外有識乃至一般民衆에對하여 啓蒙的 聲明을 發表하여 和平救國의 所信을 披瀝하여 民衆의 覺醒을 促하엿는데 이어 一般의 不安과 疑惑을 一掃하고자 汪氏의 大亞細亞主義를 印刷하여 全支各地에 配布하여 民衆의 反省을 促하기로되엇다



第三回懸賞寫眞

三等『夕陽歸帆』

場所 仁川近海

仁川府西京町一九八 李慶雨

强制的出荷를命令 公定價格制를强化

農林當局의米價安定方策

【東京電話同盟】朝鮮總督府發表에 依한七月二十日現在의 朝鮮水稻移秧狀況은 旱魃로말미아마 今年移秧豫想面積의 七割九厘에 不過하여 前年에 比하면 二割九分減 昭和三年의 凶作에比하여도一割六分三厘의 減少라는悲觀的 狀況이다 內地에서도中國及四國九州方面에서目下 旱魃로因하여 移秧이不能한現狀이므로 그對策에매우 腐心하고잇는바이가 堂島米穀取引所先限은 二十一日에드디어 三十九圓八錢에昇騰하는等 最近米價는 東日本의 豊作豫想에逆行하여 一般으로騰勢가顯著하다 이가는米價高傾向은 今秋十月부터 明年에걸처日本米穀會社에依한 市場政策에 큰支障이생길念慮가 잇슴은물러 戰時食糧政策으로서의 農産物低物價政策이란見地에서도 重大問題이므로 農林局은 目下 이에處할對策으로 여러가지로 考究中인데 그一策으로서 實行中의 政府米放出에도不拘코 今後米價昂騰을 抑制할수업슬것을 念慮하여 農林當局은 大體로 如左한方針에基하여 恩恐抑制에 依한 米價安定方策을 꾀할意向을 表明하고잇다

一、農林省管轄의 各地農業倉庫、營業倉庫其他産業組合等의 在庫米調査에 基하여 此際에積極的出荷를 勸奬하여 米의偏在를 調整할것

二、取引所及米市場에 對하여商工當局과 協力 自肅的態度로써 買占行爲를 하도록 適宜指導할것

三、朝鮮에 對하여는 總督府를 通하여 內地向移出을强要할것

그리고 現下米穀事情은 以上과가치 自治的手段으로서는 目的을 達成키어려우므로 農林省으로서는 更히第二段의 方策으로서 米穀統制法에基하여 政府米의 整理買期도 考慮하고잇는데萬一의境遇에는 强制的出荷命令을發動 公定價格制의 全面的强化等을 꾀하여야한다는 見解를 가지고 이에 對한 準備를 하고자 느저도 來週中에는 米穀配給統制新法의第四條其他關係條項施行을 볼터로 그推移는 매우注目된다

現地態度依然强硬

【天津二十二日發同盟】第四次東京會談에서 英國側이 天津問題의 背景이된 一般的原則問題를 容認하엿다는 報道에對하여 現地當局에서는 아직正式入電이 업기때문에 이에對한批判을 끄리고잇는데 다만嚴然히 今後의推移를 重視하는同時에 現在取하고잇는 對租界隔絶의措置에關하여는 變更할意思가 업다는强硬意見을 堅持하고잇다

具體的問題討議

明日부터開始

【東京電話同盟】日英東京會談은 二十二日의 有田、크레기第四次折衝에依하여 天津問題의背景이되는 一般的原則問題에 對하여 日英兩國間에 原則的諒解가成立되엇슴으로 드디어 二十四日午前十時부터 外務次官官邸에서 具體的折衝을開始하게되엇는데 東京에서의 現地交涉을 給作하기로되엇다 그런데 이折衝에서는 我方으로부터 天津問題解決을爲한 具體的諸要求를 提示하여 逐條的으로 討議를行할方針으로 同會談의 日本側代表는 外務省으로부터 加藤公使、田中領事、陸軍側으로부터 武藤少將이 出席하고 有田外相도 隨時必要에應하여 參席하며 英國側은 크레기大使、하버트天津領事와 비곳트少將이 出席하기로되엇다

世界週天

日英東京會談

지난十五日에開催된 日英東京會談은 英國側의 讓步를거듭하기四次에 이르러 日英間에 天津問題의 前提가되는 一般原則에關하여 日本政府의正式承認을어더 드디어廿二日午後十一時五十分 正式決定을 보앗다 即十五日 第一次會談에서 有田外相은 크레기大使에對하여 天津事件의背景이되어잇는 一般原則에 關하여 我方의見解를 披瀝하고 一般原則先議를提議한바 크레기大使는一般原則先議에 自己에게 裁量權이업다하여 英本國에請訓하여그回訓을기다려 第三次會談은 十九日에開催되엇스나 原則先議의 具體的問題에 有田外相은 두번째 英本國에 請訓하여 二十一日에 回訓이 드디어 英國側의 原則問題 讓步로 解決되어 二十二日 第四次會談에서 이것을 承認하여 正式承認의 回訓이 잇서 英本國政府의 正式承認을 어더 二十二日 午後十時 有田外相、크레기大使는 會談을 열고 各各 本國政府의 訓令에 依하여 具體的問題를 附議하게되엇다

華興券法幣와絶緣

法幣의 流通的 障害에 對하여 華興商業銀行에서는 二十日을期하여 華興券과 法幣와를 絶緣하여 中立十九機를 擊墜하엿다 이리하여 ……

蘇蒙機의不法越境

十六日午前三時頃 外蒙機數十機는 滿洲國境內로 侵入하여 ……

米、中立法修正延期

米國議會에서 三個月동안이나 問題되어오던 中立法修正問題는 ……

地上部隊와協力

할하河對岸猛爆

蘇蒙軍重砲陣地를殲滅

【○○基地廿三日發同盟至急報】外蒙軍의挑戰的態度와 不法猛襲에對하여 隱忍自重하여 待機中이던 ○○基地의我荒鷲精銳는 廿三日午前七時 只今까지의沈默을 깨트려 一齊히開始된 地上部隊의 砲擊에 呼應하여 早朝부터 地上部隊를 先頭로 大擧敵陣地를 猛烈適確한 爆擊을敢行하엿다 即快勝의 二十三日午前 三上部隊長을 編隊群長으로한 三上部隊의 ○○機全機는堂堂隊伍를 整하며 할하河對岸의 外蒙臺地에 集結하여 放列을베풀고 我地上部隊에 根氣진砲擊을해온 敵重砲陣地에對하여 ○○○킬로의 巨彈을퍼부어 致命的大打擊을주고全機悠悠歸還하엿스나 一方三上部隊와前後하여 大擧、田彥、阿部各部隊도 全力을 擧하여 果敢한急降下爆擊으로써 地上作戰에協力 多大한 戰果를 거두고 悠悠히基地에 歸還하엿다

濟安地區敗殘敵

一萬數千을猛攻

【太原二十二日發同盟】濟安澤州地區의 大包圍殲滅에 殲滅하여 我地上部隊精銳는 同地區到處에 潛伏한 敗殘敵軍을 一兵도노치지안흐려고 各處에서 一大殲滅戰을 展開하고잇다 即陽城寶封 ……

英佛獨伊波五國間

『廿五年平和招請』諒解說

米紙所報

【紐育二十二日發同盟】歐洲平和의 不拘하고 歐洲各國政府의 否定에도 連日 盛히傳하고잇는데 其中 가장 興味잇는것은 뉴욕 타임스의 報道하는 英、佛、獨、伊、波 五國間의 『二十五年平和招請』諒解說이다 二週間以內에 正式批准을 볼것이라고 傳하고잇다 그리고 條約案文은 參考로서 루즈벨트大統領及 헐國務長官 手許에 傳達되엇다고한다 그러나 헐長官은 昨二十一日午後 新聞記者團과의 會見에서 歐洲平和에 對하여 아무確報도 밧지안헛다고 言明하고 잇스므로 이報道는 疑問을 만히包含하고잇는바 協定이 成立되엇건 안되엇건 그것은 別問題로 하고 歐洲各國內에 이러한氣運이 잇슴을 것을 具體的으로 보여오는것으로서 右報道는 注目을끌고잇다

그要旨는 如左하다

一、단치히는獨逸에還付한다 但自由權으로써 波蘭의商業用使用을 妨害치안는다

一、波蘭回廊은 獨逸波蘭雙方에 滿足할 共用作用을가지게함

一、스에즈運河管理機關에 伊太利代表를 參加시킨다

一、伊太利는 아디스아베바、지부티鐵道管理에 參加한다

一、지브랄타르 對岸의 北阿弗利加에 中立地帶를設置하여 英國의지브랄타르에서의 立場을保障한다

一、現在의 佛伊國境及 獨佛國境을 永久히保障한다

一、右以外의 歐洲의모든 國境을 二十五年間 保障한다

一、締盟五個國은 二十五年間正規兵의數를三千萬以內로한다

今日本紙四面

八面錄

大京城에도 二十五日부터 斷水를 한다고。

◇施設이 不足하야 給水를制限함은 莫不得已한 일지나、

◇平素 밤한時 두時가 아니면 물을맛지못하는 高地帶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사나?

◇또 無時로 쓰야 되는 浴室、機械室、便所等의 所用은 어찌 되나?

◇萬般境遇를생각치안코 給水制限만해도 困難이닌가。

◇애當初에 七十萬 大京城에 一日 四萬噸밧게 못주게된것이 水道當局의 失策이거니와、

◇어런 旱魃에 依한 非常時도 머리 準備해 두엇슬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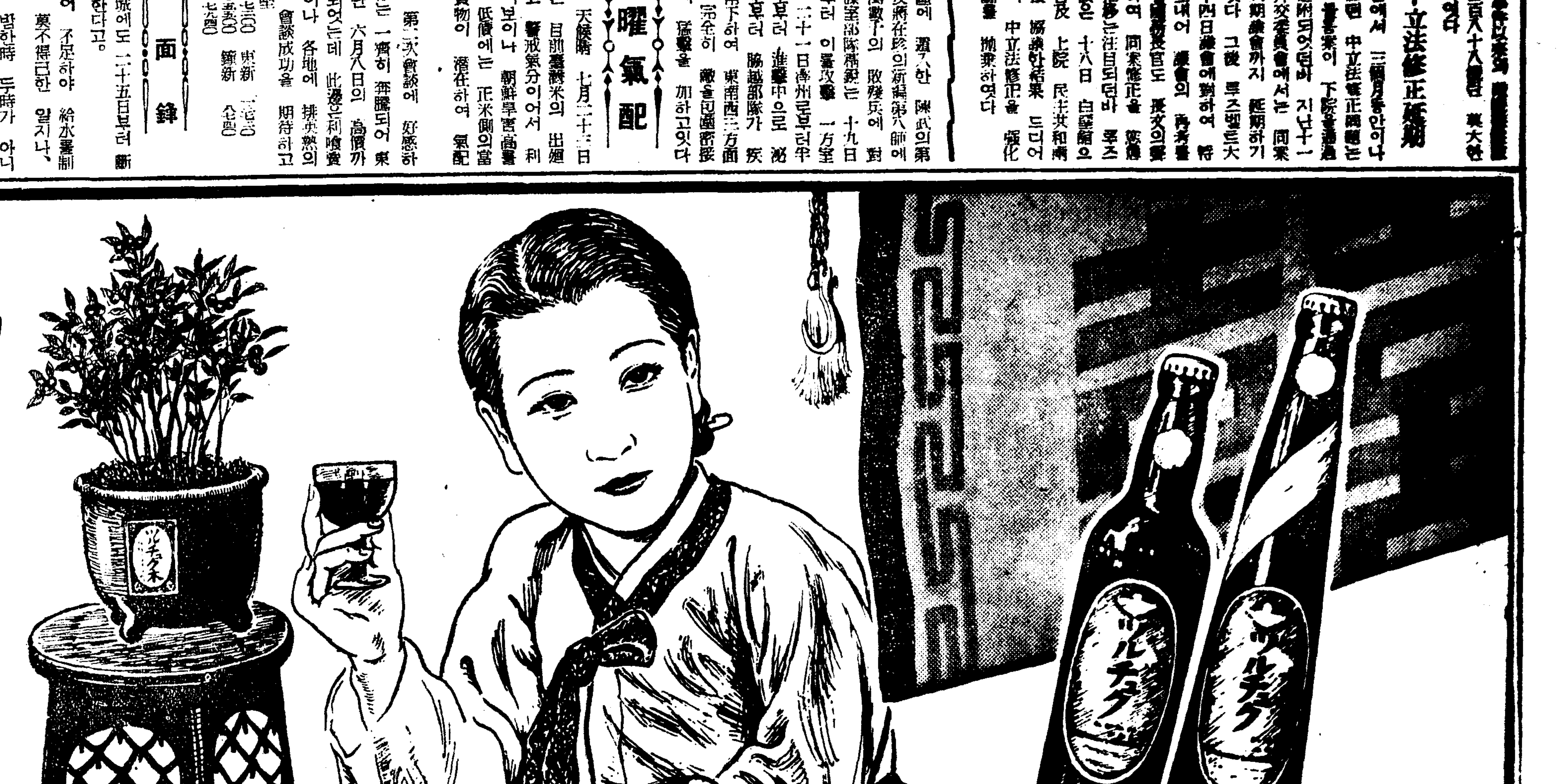
◇비가 왓스면 萬事가 解決되겟만、사람의 靈長인 點은 自然을 克服하고 自然에 依賴치안코 살수잇는데 잇나니、旱魃、洪水、暴風、地震에구애치 안코 잘살수잇게하는것이 人類의 特權。

日曜氣配

▲期米 天候晴 七月二十三日高價에는 目前臺灣米의 出廻를압두고 警戒氣分이어서 利喰賣物이보이나 朝鮮旱害高를 기어 低價에는 正米側의富用準備買物이 潛在하여 氣配强調

▲株式 第三次會談에 好感하고 諸株는 一齊히 奔騰되어 東新은지난 六月八日의 高價까지買進되엇는데 此邊은利喰賣物이보이나 各地에 排英熱의 昂騰을 會談成功을 期待하고 人氣强堅

大新 一七〇〇 東新 一二〇〇
鐘紡 一五〇〇 鐘新 一三〇〇
滿重 一七〇〇



料飮强滋・産特山頭白

ツルチュク

(뜰 죽)

니다
나命日또는祭日에써옵
다서人工着色하야慶事
예날부터燒酒等에이걸
입니다
는補强劑로 天下一品
高級淸凉飮料水로 또
을 豊富하게가젓스니
◇植物性酸
◇葡萄糖
◇비타민
뜰죽은
神秘로운靈果
白頭靈峯山麓에

七月廿五日부터四日間

劇團 演劇號

納凉興行

文藝部編 二重連鎖劇 出天大孝 沈淸傳 全十五場

幕間專門 멤버ー 主幹 金昌俊

男子部 金李朴卓李韓崔尹洪尹徐金金洪金李金禹南鄭李李

女子部 朴趙洪金金李裵宋金崔李金白韓劉金

音樂部 全李尹金金金 尹河金郭徐曹玄

幕間자즈밴드 東洋의싸리템플 天才的歌姬六歲 少女 金吉子 名컴비ー金順德孃

冷房完備 府民舘

高利貸金業者에 鐵槌
債務調停令制定準備
借家借地關係에도 適用

서민금융(庶民金融)기관이업는 조선에는 오래전부터 고리대금(高利貸金)이 성행하여 여러가지의폐를 일으키고잇던중 사변발발이래 금융이 통제되고 물가가 등귀됨을기회로 이를고리대금업자들은 더욱 심히발호하여 여러가지분쟁을 일으키는사실이 종종잇게된다 그리하여총독부에서는 이를고리대금을비롯하여 일반채권채무의 분쟁을조정하기위하여 금전채무임시조정령(金錢債務臨時調停令)을 제정실시하고자 법무국에서는 방금원안(제령안)을 작성중이다 사변발발이래 대금업자들은 은행에 금융의 길이 맥혓고 또 물가가 고등하엿스니 이에따라 당연히고률의이식을 내야만 금전의융통이되는것이라는 합리적인못하면서도 극히불합리적인이론으로 여지어서 고리를취하게된다 채무자는 급하고 융통하기때문에 쓸데는고리라도 그대로계약하는수나 밀정가를때에는 전혀작정한이식이 너무고리인즉 이것은 무리라하여 자연히채권채무간에 분쟁을일으키게된다 이와가튼고리채무를비롯하여 일반채무의여러가지 분쟁으로해서 도시에는 상업보지기타여러가지악폐를 비저내고 농촌에는 이로인하여 농촌진흥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밋치게한다 그래서 법무국에서는 이에대한 대책을 연구한 결과 이번에금전채무임시조정령을 제정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한후 그법령안작성에 진출하기로 된것이다

내지에서는 아마소화칠년에금전채무임시조정법이 발포실시되어 저간 자못성적을거두고잇는중인데 조선에도 이법령에근거를 두어가지고 조선의특수사정을가미하여서 실시하려는것이다 이번령의 성질은 대개지난번 발포된인사조정령(人事調停令)과 비슷한것으로서 제일조에 부채를 정리해서섬실한 채무자를 갱생시키기위하여 채권자 채무자의 상호양보를 밀표로 하는때에는당사자는 본법령에 의하여 조정의신립을 할수가잇슴 이한조문만 보드래도 물론 채무자를 옹호하는 법령으로서극히 합리적이며 도덕적으로 간단히 해결하라는것이 추안점인데 내지의 금전채무임시조정법은 단순한 금전채무만 취급하는것이나 조선은 여러가지 특수사정이 잇슴으로 금전채무이외에 소작료 또는 소작문제로해서 발생하는 금전과 집세도는 차가(借家) 차지(借地)관계로 해서 발생하는 금전도 역시 이조정령에 의하여 조정할수가잇게될모양이니 이것이오직 내지보다 다른점이다 주택난이심한 조선특히 차가차지법의실시가되지못하고 잇는조선으로서 금전채무이외에 가옥(家屋)차가차지관게의 것까지 적용하게되는것은 현하실정에 가장적절한것으로서 그기대는 자못큰것이니다

自動車 積載量을統一
까솔린節約上輸送量을增加
運轉手行政處分도基準劃一

총독부 경무국에서는 차량부족「까솔린」절약과 수송량의증가등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자동차의 최대적재량(積載量)을 종래보담 반분내지 한곱식증가시켜각도에서 모두다르든적재량을전조선적으로 통제하기로되엇다 그리고 자동차운전수의행정처분도 종래각도에따라 각각구구하던것을 전조선적으로 일정한기준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여 근근이를 각도에 통첩하게되엇다

家庭不和로 飮毒自殺

이십일오후네시 부내종로육정 ... 목에배신이버지 발정서(拔正書)[illegible]이가장자 와이못하야유만하먹고 끄민하는것을집사람들이 발견하고 즉시 [illegible]의원에 떡어다가응급치료를 가하엿스나 이십일일 전당시계에 드디어 절명하엿오다 원인은 당자가 인사불성으로 알길이 업스나 평소부터의 가정불화로 발작적으로 그처럼 자살을결의한듯하다

白樂三兄弟中心의 株式背任事件
被告全部無罪判決

소화팔년구월부터 다음해오월까지 열다섯달안에 부호장길상(張吉相)으로부터 주식의단기청산취인을 의뢰받은 임경래(林景來)와 주식중매점 경영자 부내청진정(淸進町)이백육십구번지 백락삼(白樂三)(三七)동지배인 백락승(白樂承)(三二)동점원 최병구(崔炳球)(三二)등이 공모하여 소위 덧부치기로 장길상에게 유만칠천구백여원의 손해를 이폇다는 백락삼 백락승 최병구등세명에관한 배임피고사건의 밀심인도공판은 이십일일 경성지방법원에서열렷는데 부옥(釜屋)재판장으로부터 피고세명에게전부무죄언도를하엿다 또한이사건은 소화구년봄서에서 착수하여그서에서 륙개월에 경성지방법원 예심에서 이년반이나 끌어오든사건으로 한때주식게를 뒤흔드러놋흔 사건인데 검사구형은 백락승형제에게징역 각각일년과 최병구에게징역팔월을 구형하엿든것이다

平壤에 酷暑
昨日華氏百度超過

【平壤支社電話】 평양은작금의혹서로 초열지대로화하고말앗는데 작일같은 백도를 넘는 무서운더위이엇다한다 이기록은 평양측후소가개설된이래 삼십년동안에처음보는일인데 이때문에 부내소학생들의 근로작업도 매일일정의시간을대기어 일직이 집에돌려보내기로하엿다한다

天然氷價引上

【平南支社電】 근년드문혹서가계속되고잇슴은 그반면에 호경기를 마지한 천연빙(天然氷)조합에서는 처음에 한판에 육전하던것을 칠전에 다시팔전 이십일에는 십전으로 갑을올려 평양시민을 놀라게하엿섯는데 그후경제경찰의 주의로 이십일부터 다시팔전씩으로 어떨것다 도위생과에서는 팔전도 비싸다고인조빙보다 이전엄한 육전이 적합한가격이라고하여 오는겨울천연빙채취권제출시에 최고가격유전을 조건부로서 채취허가를할 방침이라고한다

產金振興醫療班 兩道에派遣

일본산금진흥조선지사에서는 광산위생의만전을 도모코저 자본을융통한금산에 의료반을 파견하기로하고 우선금년의 제일차 의료반으로서 강원, 평북의두도에 ...

新聞雜誌用紙節約
明年은更一層强化
企畫院에서 需給量을配定中

사변발발이래 여러가지물자가 평시이상으로 만히소비됨에따라 물적자원(物的資源)의부족을 느끼게되는중에도 전시와는 그다지큰관게가 업슬듯한 "팔푸"즉신문잡지등 각종인쇄물의 용지원료가 또한부족하여 사변발발시 즉소화십이년부터 각신문, 잡지, 회보, 월보등 임시 혹은 정기간행물의 용지를 전반적으로통제하여 적극적사용제한을 단행하여왓것이다 그리하여 각신문사에서는 "페이지"수를 주리며 잡지, 회보, 월보등도 역시 "페이지"수와 발행회수를 주리는등 여러가지 방법으로용지절약을 도모하여오던중 명년에는금년보다도 더용지절약을 강화하지안흐면 안될형편에봉착하엿다 즉 지나(支那)의 장기건설과 만주국의 진흥에따르는 원조를 하기위하여 용지혹은 그원료인 "팔푸"를 명년부터는 더만히 수출하게되기때문에 국내의 수요량은 훨신감소하게 되엇스므로 상공성(商工省)기획원(企畫院)을 중심하야 명년도 국내용지수요량을 결정한후 각방면으로 주리는등 이것을 배정하엿는데 조선에는여러가지 특수사정의 가미로 배정된것이 신문에잇서서는약오분 잡지기타간행물에잇서서는 약이할오분의 감소률인 저간 중앙당국으로부터 총독부에 도달되엇스므로 경무국도서과에서는 지난초순경에 정수사무관(井手事務官)을 급거동경에 출장시켜 방금 이에대한 절충을 거듭하는중인데 오늘날까지는 아직 교섭의 결과를 보지못하고잇는형편인즉 명년도 용지문제에대하여 금후의추이는 자못 중대한관심을가지고 주목하게된다 신문용지만은 병참기지(兵站基地)인 조선의 특수사정도잇고 또한 반시국의 보도에대한 중요성도잇스므로 기정방침에서 다소완화될듯하나 잡지기타간행물에대하여는 조금도변동이 업시 기정방침대로 실행할모양이라 명년도에는 이방면의간행량(刊行量)은 되도록 이지제한 주리는 외에 다른도리가업시될모양이다

颱風이비를몰아온다!
南朝鮮各地에降雨
相當雨量을豫想
今夜에는京城에도降雨模樣

비가온다 비가온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가온다 매일가치파란하늘에 구름조차 잘보히지안흐며 그우에 폭양이 내리쪼여 더위만 점점심하여가서 가뭄에 울고잇는 일만농가는 물론 도회지에서는 수도의 단수등 음료수문제까지 일어나게되어 비기다리는 마음은 바작바작 타들어가고 잇섯는데 이십이일밤부터 남조선지방에 비가 오기 시작하여 이십사일나제는 점점 북으로 올라와 추풍령(秋風嶺)까지 비가오고잇다 현재각지의 비오는 모양을살피면 대구(大邱)강릉(江陵)광주(光州)목포(木浦)부산(釜山)등 남조선일대에는 대체로 큰우량은 못되어도비가나리고잇스며 명일까지오십미리가량올것은 예상할수잇다 이번비는 구주(九州)남동해상에서 북으로진행하고잇는 태풍이비를몰고오는것으로 이십사일낮까지는 상당한우량이 잇슬것이라고 기상대에서는말한다 그리고 경성지방에도오늘밤비가솟오겟스나 그리대단치는 안흘것이다

또한 이번 비를몰고온 태풍 때문에 이십삼일오전한시에는 목포에서 오전여섯시에는 부산에서 오전아홉시에는 대구에서 각각 기상특보를 발하여 경상도와 전라도 해상을 경게하도록 하엿다

連絡船缺航
關釜海峽에風浪!

【下關電話同盟】 이십삼일오전열시반 하관(下關)출범의 관부연락선 덕수환(德壽丸)과 동열한시 부산(釜山)을출범하는 경복환(景福丸)은 폭풍으로말미아마 결항하엿다고 하관운수사무소에 통지가잇섯다 그런데 이날열시반 하관을떠나는 금강환(金剛丸)은 방금가래서는출범할듯하다

光州에도降雨

【光州支局特電】 전남의시전소선의다른 지방과가치 오래가뭄으로 일반농가의근심은 물론 도회지에서는 음료수까지 부족하여곤경에 빠젓섯는데 이십이일 오후열시부터 칠미리반가량비가오고 이십삼일오후에도 비는 계속하고 잇스나 큰우량은 되지못할것 가트므로 농가에서는 초조하여 잇다

慶南에甘雨!
海岸線一帶에비가오고잇서
赤地에一縷의希望

【慶南支社電話】 경남각농촌에서는 이미모를내인것이나 아직까지 이앙을 못한것이나 할것업시 논물이 부족되어 비오기를 기다리고잇는데 이십삼일 새벽부터 날이흐리며 검은구름이 하늘을 덥더니 일천천들의 비가경남도 해안서일대에 나리기 시작하여 이십삼일오전열시까지에 부산은 칠미리반의 우량이고 다른지방의우량은 아직 보고가 업스나 대체 부산과 비슷한 우량으로 추측되는데 부산측후소의 말을 드르면 이십삼일 저녁때까지간 홀적으로 비가 오다말다할터이라한다 행여이번비에 우량이 흡족하면오만사천여정보의이앙을하지못한 대에도 모조리모를 넘길것이라한다

典當舖와古物商들이
防犯組合을組織
百八十餘店이合作

【慶南支社發】 세상에서 전당포와 고물상을 어느의미로는 범죄의온상(溫床)이라고보고잇게되는 만큼 전당포업자와 고물상은 항상 범죄에 비추어 부부산경찰서 관내의 전당포업자와 고물상은 협동일치하야 범죄를 방지하려고이번에 방범조합을 조직하기로되어 준비를진행중이라한다 부산서관내의 고물상은 백육십전당표는 이십개점인데 범죄자의장물의 처분소는저의 고물상전당포 업자들의방범에의 협력을보인것은 큰효과가잇슬것으로 주목된다

모기장에불이부터
小兒一名燒死

【英陽】 경북영양지방에선 석보면신화동대화가잇는지 일전에 이번에는 영양읍내에서 불이나서 어린아이형제가 타죽은 참사사건이잇다 ─그내용을듯건대 지난 이십일오후구시삼십분경에 동보동(東部洞)김이달(金二達)의 집에불이나서 신일동경에는 완전히진화되엇스나 방안에서 기괴한모양이로 제(구세)와 오세)가 만신소상하엿스므로 즉시응급치료를하엿스나 며지가안에 드디어 절명되엇다한다 발화된원인은 잠든애들만두고 집이 비엇슬때 바람에나부낀모기장에 등불이노흔까닭이라한다

慶雲會總會

경기고등녀학교(京畿高女)에서는 동교동창회인 경운회(慶雲會)총회를 오는 이십오일오전열한시부터 동교강당에서 개최하리라는데 회비는 오십전이며 회원은 만히와주기를바라다고한다

イナミン 一吹殺

連山市에狂人騷動

【連山】 지난십팔일 연산장터에 뜨소에 비수를든 장정한명이 돌연나타나서 닥치는대로 사람을 해코저하므로 전시내가 공포와 불안에차혓더바 당지경찰이 이를제재코저할새음에 광인은 날새게도 칼을내두르며 취조경관에게달려드는 등 일대소동을일으켜 취체경관으로도 어찌할도리가업서 이의체포방책을 강구하고잇던중 시내에거주하는 동목문일(冬木文一)씨가 용감하게도 달려들어광인의두팔을껴안고 일대격투를할지음 때마침맛보든경관대가 일제히달려드러 무난히체포하엿다하며 이광인의행각속에는 사람을해치려는 무서운칼이며창가튼 것이드러잇섯다고한다

劇團豪華船團員
龍興江서溺死

【永興】 북조선지방을 순회공연하고잇는 경성동양극장(東洋劇場)직속극단인 호화선(豪華船)일행은 이십일부터 영흥극장에서 공연하고잇섯는데 이십일일 오후영시반쯤 단원일동은 내리쪼이는더위를 못이겨 용흥강(龍興江)에서 목욕을하다가 동단원 박모(朴某)은 무참히 물에빠저죽어버렷다는바 이단원으로말미아마 당지의공연은 중지하고 이십이일에 남산(南山)에서 시체를 화장하여 본적지인 경성(京城)으로 유골(遺骨)을 보내엇다고한다

貯藏米를賣惜
大邱署某有力業者留置取調

【慶北支社發】 미가대책 문제가 말성되어 대구에서도 경제경찰의 압선으로 미검사현미를 사십칠원에가격을 협정해노차 당업자중에는 암암에 비싸질것을예상하고 팔기를조하하지안는자가생겨 이십일일오후부터 대구부내신정(新町)달성정(達城町)원대정(院垈町)등지에산재한 큰미곡창고를조사한결과 구중요유력 업자에 위반사건이 발각되어방금 대구서에인치하고 엄중취조중인데 압으로도이와가치 미가 대책의대방침에순응치안는 불경업자는단연코처치할방침이라한다

曆

日 ▲七月二十四日(月曜)陰六月八日 ▲大暑 干支壬戌 ▲日出午前五時三十分 南中午后零時四十分 ▲日入午后七時四十九分 ▲月出午前十時 ▲月入 ▲滿潮 午后一時四十分 ▲干潮(仁川)午前十一時二十分

天氣豫報

概況 七三五粍內外의 優勢한颱風은 九州의 南東五十키로海上에잇서서 北進하고 잇스며 또새로운颱風은 根室海峽에나타낫다 高氣壓은 北海道로부터 東海上에잇서 沿海州와 滿洲에로 擴大되어잇다 朝鮮은 南岸과朝鮮海峽은 風雨가좀 甚하며九州以北은 風雨이며 其他는 흐리기쉬운곳이만타 朝鮮內의氣溫은 例年에 比하여 木浦는 一度가 야르며 其他는 一度乃至三度가 노파젓다

豫報 오늘밤은 東風이불며 晴曇不定이며 明日은 東風이불며 흐릴터이다

昨日最高 三七度一
同 最低 二五度四
今朝最低 二五度四
今日正午 三十度七

明日의運動

◀野球＝全日本中等野球大會朝鮮地方第一次豫選(中朝鮮)第二日 準決勝 正午京城球場(觀覽無料)

廣告

男子卓球戰
百餘名參加의盛況

朝鮮卓球協會主催의 第六回全朝鮮男子卓球選手權大會는 二十三日午前十時부터 淸溪町大和塾에서 擧行되엇는데 單式에百名, 複式에四十二組가 參加하가운데 열리어 [illegible]까지의 戰績은 다음과갓다

單式(第二回戰)
金成顯(本府)2…0白利興(信信)
崔相奎(開城)2…1崔鼓玉(遞信)
陳炳斗(遞信)2…0鄭然俊(普成)
上村(仁川)2…0金東俊(普專)
吳[illegible](開城)2…0崔潤九(京電)
金相燮(普專)2…1金在昧(普成)
朴在儀(本府)2…0金基善(培材)
柳[illegible](普成)2…0宋在基(普成)
丁大天(京電)2…0小野(普成)
文[illegible](遞信)2…0高取(鐵道)
李泌國(普專)2…1李順[illegible](專賣)
李[illegible](普專)2…1金完用(培材)
周[illegible]洪(普專)2…0朴重河(往十)
[illegible](本府)2…0[illegible](普成)
[illegible](本府)2…0洪[illegible](京電)
鄭元成(培材)2…0朱[illegible](東日)
李在[illegible](本府)2…6[illegible](李王)
三浦(鐵道)2…0[illegible](鐵道)
下野(鐵道)2…0[illegible](普成)
金東克(京商)2…1柴田(遞商)
高岸[illegible](遞信)2…0高橋(龍中)
鄭[illegible](遞信)2…1池[illegible](鮮拓)
(第三回戰)
金成顯(本府)2…1崔相奎(開城)
李英(普專)2…1朴東[illegible](普專)
文[illegible](遞信)2…0丁大天(京電)

對城東野球에
徽文軍이慘敗

大朝主催의 第二十五回全日本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中部朝鮮第一次豫選第二日의 徽文對城東戰은 二十三日午後零時八分부터 京城球場에서 野谷(球)原口、佐村(壘)三氏審判下에 徽文中學先攻으로 開始되바 結局十七對七로 「콜드게임」되어 城東이 大勝하엿다

城東	0	0	0	0	5	4	8		17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徽文	0	0	5	0	1	1	0		7

【城東】 7山[illegible] 6河[illegible] 1岩[illegible] 2增[illegible] 3增[illegible] 8山[illegible] 9馬[illegible] 4今[illegible] 5[illegible]
【徽文】 4[illegible] 9李[illegible] 1金相[illegible] 2[illegible] 5金斗[illegible] 7金[illegible] 9金在[illegible] 3李[illegible] 6[illegible]

陸上代表甲子園에

來二十九日과 三十日에 甲子園運動場에서 열리는 日滿支競技大會에 出場하는 朝鮮代表(京鐵) 韓[illegible](長距)兩君은 二十三日午后三時 京城驛發列車로 出發하엿스며 金[illegible](아오)朴實(府廳)兩君은 二十六日에出發할터이라한다

西朝鮮中等野球

【平南支社發】 大朝主催 第二十五回全日本中等野球大會 朝鮮第一次西朝鮮豫選大會 第一日은 二十二日 午前九時부터 昨年度의優勝校 平壤商業을비롯하여 平壤一中、二中、崇仁商業、光成中學、新義州商業、鎭南浦商工等七校가參加한가운데擧行 鎭南浦商工、新義州商業、二中이 一勝하엿고 光中은 不戰勝하여 今二十四日準決勝[illegible]

中等蹴球咸南豫選

【咸南支社發】 大每主催의 第二十一回 全國中等學校蹴球選手權 咸南豫選은 二十五日午後五時 咸興公設運動場에서 咸南支局의主催로 開催키로되엇는데 參加는 中等球界의 雄將의 咸南中學、永中의 對戰으로서 代表를決定키로되엇다

咸商	0	1	0	4	0	5	0	0	0
新商	0	0	0	2	0	8	0	0	0
平商	0	0	0	9	0	0	1	0	0
崇商	0	0	0	0	0	0	0	0	0
一中	0	0	0	0	0	0	3	7	
二中	0	0	0	0	2	0	1	1	

(光中不戰一勝)

4…10 0…10 5…7

中等野球北鮮豫選

【咸南支社發】 全國中學校野球大會 北鮮豫選은 參加五校로 二十二日午後一時에 壯嚴한 入場式을 마친뒤 第一回戰 永生中學對 咸商의對戰으로 開幕되엇는데 結局 十一對零의大差로 七回戰에 콜드게임으로 咸商大勝하엿다 敗한永中은 [illegible]

咸商	0	0	5	3	2	1	0		11
	一	二	三	四	五	六	七		
永中	0	0	0	0	0	0	0		0

安井盃爭奪庭球戰
三十二組參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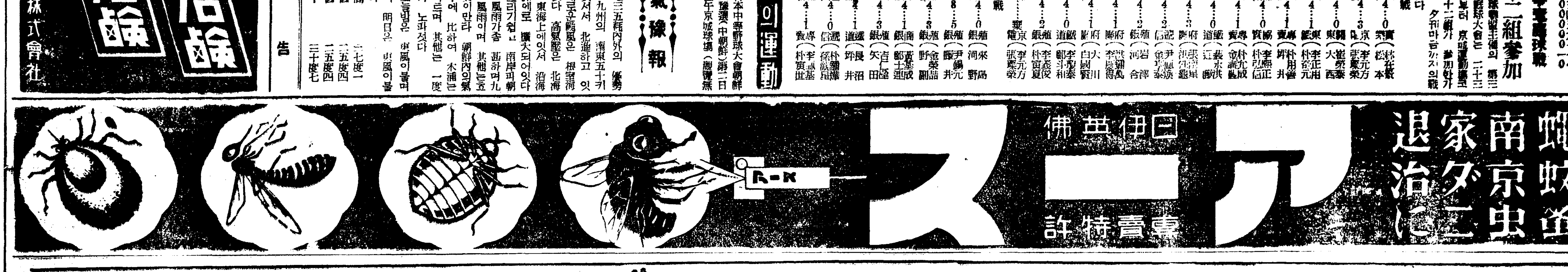
朝鮮軟式庭球聯盟主催의 第三回安井盃爭奪庭球大會는 二十三日午前九時半부터 京城運動場코트에서 三十二組가 參加한가운데開始되바 夕刊마감까지의戰況은 다음과갓다

◇第一回戰
殖銀(崔永生・[illegible]仁)4…0專賣(林在數・松本)
殖銀(河來・野島)4…3京電(李元方・張[illegible]榮)
殖銀(尹錫元・[illegible]井)4…0東拓(崔榮泰・大西)
府廳(李宮・[illegible]川)4…1鮮銀(李正用・朴在元)
遞信(洪承杰・元大[illegible])4…1專賣(朴用善・[illegible]井)
殖銀(金榮喆・野副)4…0實協(李[illegible]正・朴弘信)
殖銀(金炳斗・李[illegible])4…1專賣(朴九成・金[illegible])
商銀(黃基成・郡士連)4…0道鐵(裴永洪・[illegible])
殖銀(吉仁[illegible]・矢田)4…3府廳([illegible])
商銀(李輔[illegible]・李主[illegible])4…2遞信(尹[illegible]・金[illegible])
道鐵(張[illegible]・[illegible]沼)4…2殖銀([illegible]岩・[illegible]澤)
專賣(金[illegible]金・[illegible])4…1府廳(大[illegible]・白[illegible])
東拓(朴[illegible]・金[illegible])4…1府廳(白國[illegible]・[illegible]川)
遞信(朴[illegible]・孫[illegible])4…0道鐵(李[illegible]・鄭[illegible]和)
專賣(李[illegible]基・朴寅世)4…2殖銀(李[illegible]・朴寅夏)
府廳(白潤[illegible]・金種岩)…棄權 京電(李元方・張[illegible]榮)
◇第二回戰
殖銀(崔永生・[illegible]仁)4…0殖銀(河來・野島)
府廳(李宮・[illegible]川)4…5殖銀(尹錫元・[illegible]井)
遞信(洪承杰・元大[illegible])4…3殖銀(金榮喆・野副)
殖銀(金炳斗・李[illegible])4…1商銀(黃基成・郡士連)
殖銀(吉仁[illegible]・矢田)4…3商銀(李輔[illegible]・李主[illegible])
道鐵(張[illegible]・[illegible]沼)4…1遞信(孫[illegible]・朴[illegible])
東拓(朴龍善・大川)4…0遞信(朴[illegible]・孫[illegible])
府廳(白潤[illegible]・金種岩)4…1專賣(李[illegible]基・朴寅世)

「양인」

어제밤 경성에서는 각지대표가 모여들어배영(排英)의기세를 노피엿다▲양인이라면 더러노코 조하하던 그에달파비겨 이얼마나 변천된 세태이냐▲한째는 동양땅에 발을 붓치는양인중에도 우리가 스승으로여기고 은인으로 여기는사람도 만하잇겟지▲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이 고마운 은덕도 은더러니와 그 반대로 우리가 양인을 무조건하고 본뜨래서 생긴병통도로서 결코 적다고할수업나 ▲양인은 코떼가 노프니까 동양사람을깔보는것도 무리가 아니어 하고 인종적으로 아랫자리를 끌라잡는 비굴한생각이라는지 ▲무어니 무어니해도 양인처럼 인류의 행복을위하여 싸운 인종은 업서 그러니까 그들이가저다주는 과학의은태을 우리는 수고하지안코 향유하지안는가하는 비판정신이 업는생각이라는지가 모두 양인을 존중하는판념에서 나와던것이다▲이병폐가 최근에와서는 완전히신동아건설의 기치아래서 그림자를 감추게된 것을보면 시세의힘도 무섭거니와 동양사람으로 새로운 세기의역사를짓는데 잇서 얼마나그 자신이굿세어가고 잇는것을증명하고도남음이 잇다

產額東洋一
ニッサン 化粧石鹸
ニッサン 洗濯石鹸
日本油脂株式會社



蠅蚊蚤南京虫家ダニ退治に
日伊英佛 專賣特許
アース
A-K

補血强精强壯劑
ロクミン
SOCO ROKUMIN ロクミン
本劑는距今壹千三百餘年前宋代神宗의侍醫錢乙先生의不朽名方六味地黃元의全藥効成分을 進步한現代의 化學的操作에 依하야 完全히 抽出分離식혀가지고、거기다 補藥界의雙璧인 人蔘과 鹿茸을爲始하야葡萄糖、有機鐵等모든近代的 强壯素를 學理的으로配合식힌 綜合强壯劑입니다
身體가虛弱한분、元氣가不足한분、氣管支가弱하야 잣칫만하여도感氣잘들리는분 조금만치워도손발이어는분食慾이不振한분은한번이약을써보시오。効力이不速하고的確한外에藥價가低廉한點으로大衆의愛用을밧고잇습니다。
適應症
○肺結核
○產前產後
○急慢性貧血
○諸病恢復期
○精力增進
○消化不良
○小兒發育不良
○老衰防正
○神經衰弱
○萎黃病
○腺病
○陰萎等에奏効
(定價)五〇〇瓦入金三圓也
製造元 京城府黃金町 天一製藥株式會社
發賣元 天一藥房 振替京城一九八四三番

早期出漁等問題로 咸南沿岸住民蹶起
二十二日新浦에서準備會合

【新浦】동해안의 정어리가어업계의왕위를 점령함은 물론그붕도외 중요성과 연안주민에게 직접간접의영향이 막대함은 재론할필요도업는바로 동해안세일구어구(漁區)축함경북도의 칠월십오일부터의 조기출어와 방금성어기임에도불구하고 제이어구의 조기출어의 불허가를 고집하는 동해오경착조합의 태도에대하여서는 조합원까지도 그진의를알수업다는 형편으로 그간함남업자들은 도수산과에 수재를하여달라는 요청과 조합간부들에게 진정을 수차하엿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금번 함남연안의 운어비료제조업자 오백여명과 각지번영회(繁榮會)상공업자들이 결속하여 도당국과 조합에진정을 목적으로 지난이십이일 신포에회합하여 이에대한대책을 강구하엿스며 금후의본회합의결과에 다대한 주목이된다

理事會開催
元山二中期成會서

【元山】원산제이중학교설립기성회에서는 이십이일 송도원호텔 압남양대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회장과 부회장선거에 대하여 협의한바 잇섯는데 이회장선거는중학설립에 가장중요한 관계를가지고 잇스므로 신중을요하지안흘수 업다하여 위선아래와가티선거 집행위원을 선정후폐회하엿는데 원산지민 협회에서는동기성회 제씨에게 감사를디리기위하여 송도원호텔에서 초대만찬회를 열엇다한다

孫祚瀲 大村謙次郎 韓騰洙 滕岡喜一郎 眞鍋俊 南百祐 金景俊 尹訓甲 林虎英 佐藤廣吉

治療費나올곳업다고 危篤患者를逐出
冷情한두醫師에非難

【咸北支社發】지난십구일 오전한시반쯤되어 청진포항구나남가도와 한율역에통하는 철도교차점부근에사는 파자점외교원 홍정기(洪正基)(二七)는 피곤한몸에 술이 취하여 철도교차점을 넘어가다가때마침 한율역을 향하여가던 화물차에 치여외편다리에중상을받아 인사불성에 빠진사실이 잇섯는데 그이웃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곳떼메고서 포항동모의원의사에게 달려가치료를 청햇든바 의사는치료비를 가저오거나 치료비에대한 책임질사람이 잇거나하면 몰나도 그러치안흐면 치료할수업다고 거절하여 오전일곱시에 이르러 드디어 환자를축출하고만 사실이 잇섯다 환자는 경기도 평택(平澤)출생으로 홀몸으로 청진에와서간신히 목숨이나 이어가다가 이처럼 사경에 이른것이라는데그 의원에서 축출을 당하는 순간은 넘무도 출혈이만하 혼수상태에 빠젓다는데 외사의 조처에격분한 간호인들은 그자리를 쪼겨나온후 부근에잇는 미제의원에 차저갓던바 그의원에서는 증세의 중대함에 놀내여 즉시절골된외편다리를 잘러내고 응급수당을 가한후 입원치료하여 이십일오전까지 생명은부터잇스나 출혈이 과다한탓으로 위독상태에 빠저잇다한다

◇

부내포항동 구나남가도(羅南街道)와 한율역에 통하는철도와의 교차점에서 나남쪽으로집오메돌나간 도로편에서 지난십칠일부터 「빵라」를 지어노코두

굴속에서 낫잠자다轢死

【新義州】허천군북면오는동(?) 김창욱(金昌郁)(?)은 이십일오후네시사십분쯤 명문역에서 얼마아니떨어진 굴속에서 자갈을베고자다 차에치여 직사하엿다한다

韓家窩子村水亂
八十戶移住同胞失農

【哈爾濱】빈유선아성현(濱綏線阿城縣) 일대에는 한달동안이나 비가계속해서 전답은물론 논에도막대한 피해가잇섯는데 지난이십일에는 아십하(阿什河)강물이넘치여 그부근은 一面이십리가량이 물바다가되고 특히한가와자촌(韓家窩子村)에는 조선사람의피와땀으로 맨드는 이백오십상에 벼한포기 남기지 안코그대로 휩쓰러가고말엇는데 팔십호의동포들은 흙속에 파무친 논뚝으로 몰아다니며 다만하늘을우르러 부르짓는것뿐인데 그들의생도가 우려된다

東京在留生歡迎蹴球戰
二對一로東京軍惜敗

【安岳】동경재안악유학생구락부대 안악축구대(安岳足球隊)환영축구전은 예정과가치 안악축구대주최와 본사안악지국후원미테 지난이십일 오후다섯시부터 안악공설운동장에서 사천관중이 모인가운데 열리엇다 경기개시전에 양군의입장식이잇서 국기게양 공설배가잇슨후 식을마치고 장렬한경기의막이 열린바 작열된 백열전을전개하여 흥미중첩한가운데 진행되어 전반에 일대영으로 동경재학생군이패하고 후반에들어가 일대일로 결국 이대일로 동경군이패하엿다 동경군은 기대에어그러진 전적을남기고 이십일일오전 여덟시쯤 다음로 !쓰인 진남포로향해 출발햇다

小學生勤勞作業
二十二日부터開始

【平南支社發】평양의소학교 근로보국대남녀양학년은 이십이일부터 일제히동원하엿는데 작업장은 간동(加藤)부대의 도로건설로서 기간은 유월간이라고 한다

前科二犯의強盜에
懲役十年言渡

【忠南支社發】지난오월이십오일 오전한시경에 서대전과가수원의 두곳을 한시간전후에 흉기를가지고 각각습격하여 한때부민을 경동케하던 복면강도-전남구례군구례면계산리(求禮郡求禮面桂山里)출생 천춘근(千春根)(三〇)에대한 공판은대전지방법원 석천(石川) 재판장주심 전중(田中)검사의입회로 개정되어 검사로부터 준열한 논고가잇슨후 십이년의 징역을 구형하엿든바 재판장으로부터 징역십년을 언도하엿다

邑에다一切委囑
晉州圖書館委員會解散

【晉州】문제중에잇던 진주도서관은 금월초에 하영진씨로부터 삼만원중에 일만오백원이 도착되어 위원회에서는 위원으로도서신진소장파측에서 십여명이나 증가하여가지고 착착건축공사를진행코저 위선기지를 물색중에잇던바 돌연지난이십일오전열시에 진주서고등계에서 도서관위원장 정창조(鄭昌朝)외 간부여섯명을 초치하여 여러시간 도서관문제에대하여 의견을교환한결과 드디어 간부측에서 자발적으로도서관위원회를해산하는동시에 진주읍(晉州邑)에 도서관설립사무일체를 위촉키로 하고 읍당국에 교섭위원으로 정창조(鄭昌朝) 황한주(黃漢周)소우제(蘇佑齊)김씨를 선거하고 일단해산하엿다 이에대한 당국의말을들으면 다음과갓다

晉州署高等係主任談 삼만원을 가지고 완전한도서관을 세울수업는것은 일반사회에서 누구나 공인하는바이므로 차라리 읍당국에 그돈을 맷기여 완전한것을 맨드는것이 진주를바서 조흘줄알므로 도서관위원회간부와 타협한결과 간부들도 양해하고 자발적으로위원회를해산하고 읍에매끼게한것이올시다 운운

전기도서관문제로 지난이십일일오전열한시에 전기교섭위원인 정창조씨외두명과 아부고등계주임이 진주읍장을방문하고 장시간 여러가지로타협한결과 드디어 읍당국에 일체를 위촉하기로결정되엇다 일만오백원중에서 그동안준비용을제하고 잔금구천이백육원칠십전과 하영진씨진출약속수형(액면삼만원)일매를 읍장에게교부하고 전도서관위원중에서 중요한이들 여섯명가량을 읍에서 다시 위원으로위촉하여 읍당국과협력하려는바 일반시민으로서는 완전한도서관이 진주에서개될다는점에잇서서는 대체로찬성하는바이나 하영진씨가여하한 태도에나올는지 자못주목하고잇다

읍당국에 위촉을마치고나온위원장 정창조씨의감상을 들으면 다음과갓다

圖書館設立委員長鄭昌朝氏談 도서관문제를 읍당국에 위촉함에아프로 건축공사가 촉진되겟고 경비도절약되될려임에진주도서관설립을 위하여 다행한일이며 무슨 경의당국의 간곡한지도에 감사함을 마지안다 운운

和順郡下에強盜
富豪家를襲擊二千餘圓奪取

【全南支社發】이십일일 오후열한시경에 전남 화순군 춘양면(和順郡春陽面)사는 부호양회언(梁會彦)씨집에 괴한이 침입하여 장농속에 너허둔 현금이천백원을 강탈하여가지고 어디로인지 종적을감추엇다는 신고가 소관화순경찰서에 제출되엇스므로 즉시현장조사를한후 범인수사를하고잇다한다

沐浴하다溺死

【兼二浦】겸이포북정(兼二浦邑北町)육십이번지에 사는한창선(韓昌善)의 외아들 재복(在福)(八)은 동항창성학원(昌成學院)일학년생으로 지난이십일일 오후 당지 월봉소학교(月峰小學校)운동장에페잇는 저수지에서 동무들과 목욕하며 놀다가 길에넘는곳에빠저 무참히빠저 죽은것을 약한시간후에 건저가지고천진병원(天眞病院)에 가서 응급수당을하엿스나 회생치못하고죽엇다고한다 아이를가진 가정과 학교는 각별한 주의가 잇기를 바란다고한다

暴炎과日射病에
青年勤農家橫死

【永興】연일백도에 오르는혹서로말미암아 모범청년 근농가가 일사병으로 죽은사실 함남영흥군 순령면신성리(順寧面新亭里) 장성삼(張成三)(三一)씨는 건실한청년근농가로서 부근에서 항상 칭찬을 밧고잇던바 금번조선에 한발이 계속하여 논물에 고심하고잇는때이며 밤이고 낫이고쉬지안고 매일과가치 논에서논물보기에 여념이업섯다는데 이십일일오후두시부터 동다섯시사이에 소파리(所坡里)논두렁에서 폭서와 궁주림으로 말미아마일사병(日射病)에 걸려죽어버리고 말엇다한다

代用作을準備!
忠南農會서種子三千石購入

【忠南支社發】충남도내의 이앙상황을보건대 칠월이십일 현재 약칠할정도에 불과하여 이예따른 미식부지의 면적도 오만정보나되는 실로적당한 현상인데 충북까지만 심는다하더라도 대용작에비하여 유리하리라고 기대되고잇섯스나 이제는 그희망이적게되어 충남도 농회에서는 부득이 대용작을장려하여 한발에 대비케하엿는데 그대용작의 종자인 메밀도 구입이곤란한상태에잇스므로 팔천오백원의 신업이잇스나 이를축소해서 삼천석만을 구입하기로 되엇다

永興咸鳳燮氏
又復巨金喜捐

【永興】함남영흥군 홍인면남리(永興邑龍南里)광업가 함봉섭(咸鳳燮)씨는 기보한바와가치 사회에거액을 희사하야 일반을 감격케하던바 도엇마전에는 씨의성공을자아내 선흥면(宣興面)농산금산(龍金山)을팔고 그땅을떠나게되자 그부근 빈민을위하여 다대한금액을 분다사개부락의 구장을통하여 적선하엿다는데 이에주민들은 씨의호의에대하여 감사함을 마지안는다는데 도씨는 동리 용창학원(龍昌學院)이 금번 제이소학교로 승격될제 금사백원을 기금으로 허처하엿고 또 용반주재소(龍盤駐在所)개축비로 오백원그외에도 씨는 각방면에 만흔희사를하여 일반의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定平에大種馬場
用地十八萬坪을買收交涉中
三個年繼續工事로九月着工

【定平】총독부에서는 함경남도를 중심으로 대종마장을 직영할 방침으로 여러곳을 물색하던중 정평군정평면송흥리(松興里)주역인 백학재(白鶴峙)와 주이면왕악재(朱伊面王樂峙)사이가 여러가지로보아 가장 적당하다하여 이곳에 십팔만평이란 토지를 매수키로 결정하고 지난십구일 관계지주들을 정평군회의실에 청하여노코 정평군수로부터 설치내용에대한 설명이잇슨후 토지매수에대한 교섭이잇섯는데 당일 출석한 지주들은 모두 승인하게되어 총필수일백이십여필중 칠십여필은 승낙수속을 필하엿스며 출석하지안흔 지주들도 불일간 모두 승낙하리라는바 설치공사는 금년 구월부터 시작하여 삼년간을 계속하리라는데 설치되는 대로는 종마와 직원들이 오게 될것이나 삼년후 완성되는날에는 일백오십두의 종마를기르게될것이며 장장(場長)이하 기사와직원만도 오십여명을 두게될것이므로 함남의 명승지의 하나이될것이라한다

元老格들도蹶起
明朗府會建設目標로

【慶南支社發】파반시야(矢野)부윤의 주재로서 명랑부산건설을 목표로 부회의원 선거에관하여 관민간담회의 뒤를이어 부산의원로인 박간(迫間)향뢰(香椎)입석(立石)삼촌(杉村)서조(西條)김동준(金東準)김장태(金璋泰)김동현(金東鉉)세씨의 발기로 지난이십일오후다섯시부터 철도호텔에서 명랑부회건설에대한 간담회를 열엇다 그리하여 후보자 선정에관하여 매선의혁신에의한 추천후은 널리부민의 총의에무는 형식의존중 정총대를 통하여 후보자예선에의한 선정 일반부민에 대선거의식을 환기하여 자각에의한 숙정선거 등등의여러가지 의견이 잇섯스나 어느방법에의함이 가장정당한것인가에대하여는 결정을보지 못하다가 향뢰박간 양씨로부터 우리들은 부산의시질서 건설을 위하여멸사봉공의 염(念)에 끌기하여넷날에돌아가 부성에 참여할각오도잇다는결의를 명확히 보이엿스며 다른부산을 대표할사람의 출마에대하여는정총대에게 저력을의뢰하는것이 조캣다는 결론에도달하고 여덟시반에 이회한은곳낫다한다

大田에赤痢流行

【忠南支社發】장기한발이 계속됨에따라 더위에못이여 냉수를 과도히 마심에기인됨인지 대전부내 본정과춘일정등지에 적리환자가 발생하여 십이일현재십명을 돌파하고잇다 이에대경실색한 부당국에서는 방역반(防疫班)을 파견하여 이의방지에 적극적 노력을하고 잇는바 이로말미아마 전부민은 전전긍긍하고잇다고한다

市場設置委員會

【忠南支社發】오래전부터 문제되어잇는 대전일용품 시장은장소문제로 지금까지 지연되고잇던바 요즈음 부당국의 방침도 대체로결정되어 근간동시장설치위원회를 개최하리라는데 장소는시내의 중앙지대인 한성은행지점근처가 되리라한다

密航船一隻襲擊
居間、被募集者等을一網打盡

【慶南支社發】지난이십일일 오후일곱시사십분쯤 소화통일정목도로에서 수상한두사람이 무엇인가 밀의하고잇는것을 발견한 부산수상서원은 그를 부잡으려할지음에 그중한명은 도주하고 한명만은 겨우부잡아서 수사한축 몸에 이백십원이나돈이잇서 조중한결과 밀항뿌로카의압잡이인것이 판명되어 수상서에서는 이십이일미명에 부산부 암남리(岩南里)해안에 잠복해잇든 주소부정의 전과유범뿌로커 김재관(金在寬)(三五)의 밀항선한척과 밀항뿌로커 장기현서유마정(長崎縣西有馬町)근등영삼랑(近藤榮三郞)(三五)의 밀항선한척 합三척을 습격하고 뿌로커와 피모집자 모지부 팔십구명을일망타진하엿다 그리하여 그들을 지금취조중인데 압래한밀항선은 중요구입중을 압수하엿다

최근 부산부내의유식계급과 편공리의 부인들간에는 퇴폐적유흥이 성하고잇서 뜻잇는자의 눈쌀을 찌프리게하고잇다 ▲속 그들은 동성사이에 부부를맷고 그결혼식을 거행한다고 칭하며 동래온천장등지에 오륙명 내지 십여명이 한그룹이되어가서 술상을채리고 노래를부르고 춤을추며 밤이깁도록 노는일이 일비재하다하며 심하면 기생까지데려다가 홍유한다고한다 ▲ 이러한 나쁜경향이 점차농후해가는데비추어 당국과 사회일부에서는 그들이 종후부인으로써 시꼿쫏은 인식할만한 유식계급층으로써 자숙자계를모르는 할서행동에 비난이놉다 (釜山)

청년이 동업으로 어름장사를시작하여 첫날의 계산을 마치고 막막에서 두동무가 잠을자던바 그중한사람이 아침여섯시에 일어나본즉 뜻밧게도 저데누운 친구가 죽어누운것을발견하고크게놀래다 어느때 어떠케해서그 동무가죽엇는지 몰랏하여 그는 즉시그곳에서 어배머물중동촉에잇는모외원 원장모씨를차저기병을보아달라고 애원을하엿다한다 죽어누운 사람은 경기도광주군송파(?)에 본적을두고 지난이월에 청진에 홀몸으로버리불은 채수록(蔡壽祿)(二三)이와 그동무는 역시 홀몸으로 경성에서 청진에서 어곳에와서 가치 노동도하고 행상도하던 신동백(?)(二一)이란 사람인데 그들은 겨우 돈오륙원을 만드러가지고 막을지고 어름장사를하여 본전한것 육원을 어더가지고 채씨가 몸에품고 자다가 그만 죽고말엇다 그병원의사는 시체를 얼굴만 보고 그자리에서 진찰을 하고 돌아서면서 신풍병을향하여 왕진료외진단비로 육원을내라고 청구하엿스므로 신씨는 사유를 말하여 두사람의 전재산인 육원을 여보아며 매장비용이나 하겟스니 다소간남겨주는 세우거뇨 확인해달라고 애원을 햇스나 원장은 도모지 귀에 듯지안코 마침내잇는대로 전재산을 모조리 바더가지고 가고말엇이 잇섯다 시체에 손도대지안코 드려다보지도안코 그저「수면병에신음하다가 수면세(睡眠死)를 파음한듯으로 사망한것같다」는애매한사망 진단서한장을 내주어서 한처사에대하여 일반의 분노를 사고잇다

無屆新築이續出
平北保安課嚴重取締

【新義州】시가지계획령실시이후 신의주부내에는 가옥건축을 시작하는이가 상당히만흔데 이들중에는 당연히 당국의 허가를 어더야할것을 게출조차하지안코 건축개조를하는자도 역시게출치 안는자가잇스므로 도보안과에서는 엄중취체를하기로되엇다

반드시屆出하라 崔保安課長談

이에대하여 최(崔)보안과장은 다음과가치 말한다 「건축위반자는 상당히만호나 대개는시가지계획령을 몰라서더가 또는법문(法文)의해석을 잘못한것이 대부분으로 악의나고의로 위반하자는 별로업섯스므로 관대한처치를 하여왓다 그러나 금후는 단호히 처분할작정이다 그러므로 건축하려면 의례허먼저 건축계원에게 게출을하여 위반되지안토록 주의를하여야한다」

漢拏山下의
觀音寺에火災

【濟州】이십일오전한시경에 제주도한나산(漢拏山)미테 잇는관음사(觀音寺)에 불이나서 때마침바람이 몹시불어서 매우위험하엿는데 제주소방대와 필사적활동으로 세시간만에 진화가되엇는데 법당의 집두채가 탓다한다 손해액은 약오천원가량이며 현금불상원도소실되엇다한다 화재의 원인은 실화인듯하다고한다 이절은 한나산등산객에게만흔 편의를 주든곳이라한다

第九回全朝鮮水上競技

▲日時 八月十九日正午
▲場所 箕林里公設「풀」
▲申込期日 八月十七日 參加金二十錢
◇主催 關西體育會
◇後援 朝鮮日報平南支社

廣藏株式會社 第六拾四期貸借對照表 昭和十四年六月末日現在

資産	金額	負債	金額
未拂込株金	[illegible]	株金	[illegible]
土地建物	[illegible]	法定積立金	[illegible]
什器	[illegible]	別途積立金	[illegible]
有價證券	[illegible]	前期繰越金	[illegible]
諸貸付金	[illegible]	當期純益金	[illegible]
假拂金	[illegible]	假受金	[illegible]
合計	[illegible]	合計	[illegible]

昭和十四年七月 廣藏株式會社

콜럼비아 레코ー드
40855 사랑엔속고 돈에울고
40856 울고싶은 마음
40857 동트는 大地 金英椿

仕入案內
學生冬服 國防色、黑色細絨、三罰混紡及純毛製冬服學生服其他仕品雜貨全部連鎖店本設置地에限하야現金都賣 商地見本進呈 京城大門町一丁目 和信連鎖店部
學用文具 新學期用品、各種文具雜記用ランドセル筆入其他學用品事務用品一切具備 連鎖店本設置地에限하야現金都賣 京城西大門町 和信連鎖店部
各種雜貨 化粧品小間物手藝品旅行用具ミシン洋服附屬品其他各種雜貨在庫豐富 連鎖店本設置地에限하야現金都賣 京城西大門町 和信連鎖店部

朝報案內
뽀ー이募集 十七、八歲 午前中本人來談
運轉手 免許取得保證 入學案內 朝鮮第一自動車學院
社員 若干名 京城府內地理外交收金에 保證人要

朝鮮日報愛讀者限金펜萬年筆但一本式 由自金返換交向不品文註布頒額半價市
最新型二重輪及クリップ本金張軸純エボナイト太サ四分五厘プル金펜付市價半額大特價金4.25(但600本限)
最新型二重輪及クリップ本金張軸純ビスコー太サ四分最高級 金펜付市價半額大特價金4.75(但120本限)
最新型二重輪及クリップ本金張軸純エボナイト太サ五分最大プル펜本イリズム付金펜代用絕對保證付 2.25(但360本限) 但註文은 葉書로申込하시면 代金引換으로 十二時間內에發送하되 代引은 送料三十錢式加算함 前金或은 註文高三割以上約束金으로 振替東京一五一九四〇番セイコウシャ營業所宛拂込하시는 분의 廢하여 送料三十錢을 弊所에서 負擔할 迅速註文이 大勝利!
東京市杉並區天沼三ノ七八三 セイコウシャ營業所 振替東京一五一九四〇番 成工社 萬年筆カタログ는 郵券二錢要申中刷印カタログ問屋卸計時古新國各但 發行치안이함

內科一般 入院室X光線完備 李義植內科醫院 京城府仁寺町三三六(旧朝鮮劇場北隣) 電光③三三五九

宿醉 노ー신 ノーシン

六〇六號와 水銀劑
北里硏究所博士의水銀療法에基하야病毒治療의三大原則인六〇六號와水銀劑와를比較檢討하야臨牀的長久한實驗에依하면六〇六號는感染直後의急性病에는效果잇스나慢性及潛伏病毒에對해서는그效果가업스므로水銀劑의效果에多大한信賴를가지는結論에到達햇다. 더욱腦脊髓、神經系統及內臟器官에移行한病毒에對해서는全혀水銀治療原則에따라야할것이다. 그런데從來의水銀劑는其副作用으로因해서 … 效果와詳細한것은郵券三錢封入申込하시면文獻進呈함.
コロイゲン 內服藥 外用藥 內用 二圓、四圓、七圓五十錢、十二圓、二十圓 外用 一圓二十錢(水劑) 二圓(水劑) 七十錢(軟膏) 全國有名藥店에有함 東京市芝區高輪北町三三 原澤水銀研究所 振替東京八〇五二番

神經痛에 不可飲 (신경통에 불가음)

ヤマハバンド 絕對! 하모니카界의最高級品 ヤマハアコーデオン 近代人의樂器 一〇圓ヨリ各種 製造發賣元 京城府本町一丁目一八 日本樂器會社

暑中御禮 日鐵鑛業株式會社 价川鑛業所 平安南道价川郡价川面軍隅里

皮膚チャージ(치ー지) 근지러운 皮膚病 무좀、버짐、옴、여드름 東京神田花房町 山崎帝國堂

朝鮮家庭醫學全書 定價貳圓五十錢 送料三十五錢 朝鮮日報出版部發行

廿四日封切 極樂オペレッタ 胸に咲く花 笑ひのコムビ ローレル、ハーディ主演 佐分利信 笠智衆 橫美佐子 葉山正雄 三浦光子 坂本武 前農相有馬頼寧伯原作 宗本英男監督 見よ！美しの花の色。聞け！逞しき花の聲。大地を踏んで起き上る若き男女の胸に咲く花 どんな憂ひも一瞬にして吹き飛んでしまふ素晴しく面白い映畫！ おなじみのユーゴウ、スラビヤの藝團アレキサンダ！ペトロフ外新らしい踊子を加へての來演です。 完全冷房開始 都會の避暑地 明治座

廣告が負けてる 千代田ネオトニック 專賣特許의育毛劑 定價一圓三十八錢 本舖・株式會社 千代田山岸商店・東京豐島區池袋一丁目七六八

學生讀書

連作小說 破鏡을이러고

朴英熙

『破鏡』이란 어여쁜冊子가新刊되엇다。이것은 序文에 잇는바와가치 昭和十二年四月부터 東亞日報에서 發行한『新家庭』에 連載되엇든것인바 特히 興味를끄는것은 이것이六人의作家가 共同執筆한 合作小說이다。合作小說은 朝鮮서 몃번 잇섯든듯하나 冊子로 나오기는 이『破鏡』이 처음이다。合作小說에 對한 文學的評價라는것은 어느때나 놉게말할수업는것이엇다。그것은 個作과 文學에對한 態度가 相異함으로써 생기는 決定的人生觀에 等閑하게 되는것이다。그러므로 흔이는 事件의展開만이 主로되어 讀者의 好奇心과 그興味에만 迎合되도록 만드는것이다。이러한 까닭에 連作小說은 文學的 限界線外에 두는 것이다。

그런데『破鏡』은 亦是 連作小說의 境地를 버서나지못한것은 勿論이나 全然히 問題를 興味에만 두엇다고 斷言하기는 어렵다。첫재로 六人의執筆者가(朴花城、嚴興燮、韓仁澤、李無影、姜敬愛、蔣碧岩) 거지반 同一한 傾向을 가진 作家라는데서 興味를이끈다。이同一한傾向을 가진 六人의 作家는 무엇을 表現하려고 努力하엿는가 하는것이 이冊을읽게 하는點이다。

또 그다음으로는 作品의題材가 家庭小說임에 틀림업스나、普通世人이 말하는 戀愛悲戀이나 悲戀의 눈물을 誇張한것은 아니다。이 만치안은 페ー지에서 不義를 엿보고 良心을 解剖하여 讀者의 가슴속기피 찌르는 무엇이잇다。그리해서 生活의 定義를 나리려고 하고 社會의 現像을 더듬어 보려하엿다。

貞操와生活의 錯雜한 關係속에서 隱然히 새로운 貞操觀、純潔觀을 가추고 잇다。相異한 六人의 作家의 筆致이 그中에는 流暢한것도 업지안으나、그것은 技術의 優秀에잇고、그中心問題를 表現한것은 아니라。더욱이 女性에게 잇어서、生命과 밝힐수업는 母性愛를 그리엇다。母性愛란 무엇인가。이問題는 이미 오래된 問題로 正答이업슬만치 硏究가 만히 잇는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事實이나。이『破鏡』에서도 母性愛가 어떠한것인가를 엿기위해서 조고마한 問題를 提出하여보앗다。

社會小說도 본다면 넘우나 家庭小說이요 家庭小說이라면 또 社會小說가티 보인다면 잇슬 逃避라고 할사람이 잇슬는지도 모르나 如何間家庭小說女性小說로쓰든것이나 從來의規範을 깨트리고 그視野를 널피여보려고 하엿다고도 할수잇다。良心과 誘惑과 懺悔와 母性愛의 깨끗하고 價値잇슴을 誇張한 作品이라고 나는 생각햇다。(發行所 京城府安國町中央印書館 定價一圓二十錢 送料十五錢)

林學洙譯編 現代英詩選

異河潤

岸曙의 譯詩集『懊惱의 舞踏』(大正十年)는 新詩運動勃興以後 처음되는 詩集으로서 歷史的意義가 잇거니와 그는 繼續하야 타고ー르의『기탄자리』(大正十二年)『新月』(大正十三年)『園丁』(同)을 飜譯하엿스며『시몬즈』의譯詩集『잃어진眞珠』(同)을 내는等 初期의 飜譯詩人으로 그 功績이 적지아니하다。그러나 八峰의譯詩集『戀愛意思』(大正十三年)는 別로 널리알리워지지못한채 뒤니어 하이네詩集이니 바이론詩集이니 文壇과는 別般干涉도업는 譯者의著書가 한동안 出版하더니 내 譯詩集『失香의花園』(昭和八年)이 出版될때까지 이러타할 한卷의 譯詩集도 볼수업섯다 勿論 樹州、無涯、月坡、지용 龍兒、徐恒錫等諸氏의 定期出版物上에서의 活躍은 看過키어려운 貢獻을 認定해야만한다

그러다가 昨今의朗盛한 出版事業熱의 結實로 爲先 人文社版『海外抒情詩集』의 차리를當然한 刊行을 보게되엇스니 이譯詩集의 企圖는 十九世紀의 歐米抒情詩를 各其專門하는 詩人學徒들에 依하야 紹介코저한데잇다。

이미詩集『石榴』를가지고도『八道風物詩集』과『候鳥』의上梓를 알두고 잇는詩人林學洙氏가 여기加擔하야 英國의愛蘭의優秀한 抒情詩를 옴겨노케된것은 勿論 그가 英文學을 忠實하게 專攻하는데 起因하는것이지만 나는 그보다도 그가아름다운 詩囊스는流麗한 筆致의 所有者라는데서 더욱 그價値를 發見하고서펏다。

어제 出版文化에 遼失한理想과 許多한翻譯을가지고 그동안 主로 우리古典을 刊行한『朝鮮文庫』가 飜譯出版의 스타ー트를 林學洙譯編에依한『現代英詩選』에서 끈케된것은 斯界에傳함 깃븐消息만에끄치지것이아니라 그아말도 西歐詩歌의 大宗인 英詩歌의現況을 作品의보다조흔 移植에依하여 소개하게 될 確實한 수잇는이 譯書의 詩壇에의 寄與를우리는期待하고십다는것이다

內容을 살펴보건대 브리지스、하ー디를 爲始하여 詩人의數爻가 二十四、總四十七篇으로 序文과解說(譯者와英詩變遷)은 簡明한紹介라 그親切한편解와아울러 이冊의長點을 말하는 資料가 아니면아니된다 그 序文에 이르는바『필수잇는대로 詞華集에는 그들의優秀한 作品들을 選하여슴』에서 譯者의『現代英詩選』의面目을 가초저한 努力이 充分히 엿보거니와『메이스필드』의『바다의病』『드・라・머어』의『解答』과『開拓者』『臺런』의『夢幻』『閑聽者』가의『老陋』、『부ー룩』의『행길은 천의눈을 가젓거늘』、『맥크레인』의『葡萄酒平原에』엘리오트의『매기의旅行』『루이스』의『깃에서쇠로』中에서選한『이제야 물오른水仙』이라든가『大地에 호러지는 아름다움』그리고『보ー덴』의『노ー맨디에서』等은 讀者의如何를不問하고 詞華集마다에 大槪共通으로 編入되어잇는 代表的作品들이엇다 더구나 그가가장만히 譯出한『오ー덴』과『루이스』의作品은 내記憶에 잘못이업다면 아직 아모도 손을댄사람이업섯다고 생각한다 勿論『스펜더ー』『로버ー츠』『보ー덴』等著者가 區分하야 後期에 屬한다는 詩人에 對하야서는『엘리오트』한사람을 除外하고서는 專門圈外에 廬한 누구나가 初對面일것이다임을 推斷하여도 讀者에對한 失禮가되지안을줄안다 그도 序文에서 말한바와 가치『다만 短時間에 譯한것이므로 군데군데 다듬어야할데가 잇슬』것을 一一히言及치안커니와 文庫에嶄新한맛을 加해준것만으로도 價値잇는 著書이리라 무릇詩에關心을가진現代人必讀必携의書임을 保證한다(京城府鐘路 學藝社發行 定價卅錢 送料三錢)

(詩) 國境의 밤

中事 張祥鳳

마음車가 지나간뒤 驛夫는 고달피 끄덕거리는 驛燈만이 조을고 胡江뎌을 직히다。

여울소리 하도 차서 버들니끈 조심하밤이 거며가며 警鑼밖소리 터더욱 저즈러지다。

밤오얀 안개가 고요히 떨우에 衣裳을 펴는데

江건너 派守막에서는 금방 銃소리가 어러날것만갓해

내 感傷의窓門을 굿게 잠그는 이밤의 잘음쇠

그러나 聯想과기픈 내 旅心이 살포시 고개를 들어

女眞 千年 古史를 뒤적거리다。

—五、三 豆滿江畔에서—

學生作品 …學藝部選…

綠陰小感

中央保育 李信鴻

푸른 그늘이 蒸蒸한운어머니푸처럼 여름하침을莊嚴케하는 우리敎庭에는 여러어린이들의 자장가가 흘러나리고 나비들이 사랑을 읊조리던 蒸蒸펄기도 배배 고개를 탈아미고 원망스리 해스살놓엽눈질하며 永訣의 讚表를 그리고잇습니다。뒤人는 기술에는 비롤청하는 못개고리들의 정성스런노래가 들려오고 소나무가지를 흔드는 맥업는 바람이 疲困한 夕陽을 말하고잇습니다。

水蒸氣가 보얏케 품어올려야할 江물은 몬지라도 일으킬듯 뽀ー든의 겨는자최가한결 어즈럽고 제철을 맛난듯 이리뛰고 저리뛰는 人魚의떼가 꼬리와 꼬리를 맛물고들 아갑니다。

夕陽노을이 五色光明을 노는날에는 이 江물속에 恨만흔 眞珠알이 제각기 제슬픔에차언 우름이 江물을 뒤어고 터저나올것입니다。

나는 내거름을 좃고 내마음은 내거름을 딸코 거름은 마음을 좃고 마음은 거름을 딸아 가나봅니다。

白紙쪽가튼 赤兒들의 天眞爛漫한 거울쪽가이 우리들의 告白을 손곱아 기다린다는 萬言이 내運命을 토막첫습니다

果然 어느滿筆을 붓잡어야 鑑賞기픈 眞善美를 바로그리겟습니까?!

假面과 虛僞의 탈을쓴 風潮을 頹敗시켜준 우리祖上의 遺業이 아닙니까?우리는 이 탈바을 벗는것이 참이나? 한겹를 더쓰는것이 옳으냐하는 質疑가 아줄섭니다 탈을 벗는다고 크게呼吸하는 그를 가르처 잇처다고 손짓하는 世上이아닌가요!先天的으로 꼭 그래야하는 關係들이라면 우리아페노힌 後天의責任은 이느方式의 義務일까요?

내故鄕은 숙대욱어진 園고 鬱鬱한 叢林입니다。아무리 뜨르듯 네리쪼이는 暴熱이猛暑하여도 찬바람이 휘ー휘즙니다。나는 때때로 熱이올라 잇슬적이 뻐작뻐작타는 境遇에도 내마음은 찬바람이 휘ー휘즙니다。

파라솔을 밧고 핸드빽을 드는 矛盾은 自然을 感謝할줄 모르는 人間입니다。數만흔男性을 向하여 나를 놀려다오하는 阿諛에 지내지안습니다 우리의힘을 自覺시킬 必要가 어데잇서요? 우리는 그런寫生的 욕건이 아닙니다。

男子의 외쪽 갈빗대한개로 女子를 만드럿다는 虛無孟浪한 酒物說에 氣勢가 굽어집닛가? 宗敎的 信仰의 相對도 오직 내마음에 잇습니다。天堂이니 極樂이 어데잇서요 이몸이 곳 佛身이요 唯心이곳 淨土가 어니겟습니까?

미듭시다。마음껏미듭시다。내마음에 附合된 眞理라는얼마든지 미더도 조습니다。우리의마음을 빼앗기지말고 우리의 밋는마음이 사랑합시다 바른생각과 올흔미듬이 우리生涯를 支配하는날이면 어떤한 試鍊도 아무런 衝動도 關係차 안습니다。

落照지는 漢江에 하루꿈을 떠워보낸 나는 여러벗들의憧憬의꿈을 차저서 어머니품가튼 校門을 向합니다。

어느 異域을 달린듯 개고리스소리만 더욱 요란스럽고 여러어린이들의 자장가도 그첫습니다。어마 제各己어머니품에안기여 섯곡지를 어루만지며 아양을 피우지안흐면 팔을비고 가만이 누워 저쫌華麗한 꿈을 부르는지도 모릅니다 ―끚―

斷想片片

駒澤大學 睦萬榮

웨그리 歸去來辭만이 만흐냐

生活이란 모든殘像속에서 모든賭博속에서『自我』를건저보자

相常 求納이란殘滓가 끈끈이와도가티 날개를 붓처버린에 憎惡를 느낀다。

內容업는『이즘』에 容然한固執만을세우지말라。

習性이天性이되고 붉은피가따지가된다음엔 땅우에하늘잇슴을 이즐지며 아버지에 悲慘한죽엄을 이즈리라。

期於코잡으려는 그對象이 나날이 그焦點을어이며 한갓 그길에 信念을 消耗식히련다。

蠻勇을다해 강아지떼를좃고그의메주덩석을 직히라

現實아페 茫然히안저 딱지떠러지엿지만을세우지말지며 남어지鼓動에『삶』을집허보라。

『맑고깨끗한 새로운 샘(泉)을어끼빼까지는 不潔한 덩어리물이라도 버리지를말라』―어것은 企業翁의 金言이다

『美哉아!』도조코『醜哉아…』도조라。그러나『悲哉아!』『哀哉아!』만은 끗까지삼가자

苦精中에서 享樂을求하려는者를『敗北한功利主義者』라고 불러볼때××中에서 享樂을 求하는者는『숭음의 讚美者』라고외우처보앗다。

視線은 形像에 두지말고 어즈버 殘塊에두라。

自畵像에 對한 思索에 넘우나 冷情이지나처『自己』보다도 더苦痛을가즌 或은 더無責任한 어느畸形的 客體를 그리고 말엇다

옛文化가 한다리를 이즌後모든 神話도 權威를 이젓다。

열마디의眞言보다도 한마디의諭辭이 오히려 그들에게 樂이되고 우슴이되니 그亦是펏다。

生活이 諷刺가되는곳엔 人間은 悲劇의俳優가되고 人形과幽靈이 演出과照明을마튼後 觀衆席엔盲人의우슴이 터저나오리라 (丁)

週間스포ー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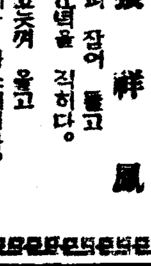
우리들에게 壯快味와 아울러 體力을 길러주는 登山은 春、夏、秋、冬의 어느季節을 勿論하고 할수잇는것이니 以上의네季節이 바뀌는때마다 여러가지로 變化하여가는 多種多樣의情景를 달리맛볼수잇서서 어느것이나 獨特한 妙趣에 우리들의 마음은 사로자피는것이다 其中에서도 여름山岳의 한交態에感激으로만도 山岳禮讚의 소리가 놉거던 하물며 그네들에게 四季를通하여서의 山靈의 全體를 알게된다 면比할데업는 愛慕의念이용소슴칠것이다 春의山岳 夏의山岳 秋의山岳 冬의山岳 自然界의種種相에 調和하는데에는 各自가 거기에順應할만한 心念이 가장必要하다 여기서 自然과人生이融和하여 비로소 우리들의 萬年之計가이루어지는것이다 이에 四季를 通해서의 登山의心得을 陳述하는것보답도 때가夏節이라 主로 여름의山岳에 對하여 槪略을 紹介하려고한다登山은 敎育上에잇서서 어떠한意味를가지고잇스며 도어떠케하여서實行하여야만 致育的活動을 體得할수잇슬까? 이것은 致育更新運動에 잇서서 重要한 基礎的檢討問題이다 해를 거듭할수록數만흔 사람이 都市生活에서떠나 山岳의 품에 안기게되는것이다 目的한 山岳의 중턱에서숨이가빠하면서도 上上峰을 바라보고 勇氣를 내어 괴로운體驗을 하면 무엇때문에 내가여기까지 올라와던가? 하는 생각도 업지안타 그러치만 그산에서 내려와 歸家한 後에는또다시 그산을 찻고 시퍼지는것이다 이것은 그무엇을 意味하는것일까? 그러타 登山客들에게 무엇을 위하여 登山하느냐? 하고 물어본다면 제스스로 明確한對答을하는사람은 드물다 山岳에多年間 體驗을쌋흔人士들의 會合에서도 其目的과 價値에對하여 論議하여보앗지그리滿足한對答을 어들수업다 結局그저 登山이조흐니까 登攀한다는程度로 말하는그이가 가장 適切하다고할것이니『루이스、트렌카ー』氏著의『雪山의生活者』中에는『트렌카ー』氏가 羅府에잇는『타임스』의 新聞記者의來訪을바다 어찌하여 登山하느냐? 무엇을위하여 登山하느냐等의 質問을바닷슬때의 會話가실려잇는데 登山家와 登山의經驗이 업는사람 사이에는 兩者間의 意識의 差異가 잇는것을 잘알수잇다 登山家의 마음 그것은 體驗이업는사람에게는 到底히 알수 업다는것을 滋味잇게 記錄한것이 잇섯다 山岳은 心身을 鍛鍊하여 山岳의 空氣는 淸潔하고 紫外線도만타 山岳의 植物、動物 그리고地質鑛物等은 모두 生生한科學的知識을 엇는同時에 科學的訓練을바들機會를준다 山岳은 여러가지의生産물준다 登山은 堅實、剛健한 精神을 길러주며 忍耐力을 養成하는 以外에도 純眞한 氣風을 길러준다 宏大한 精神을 涵養한다 山嶽은 아름다운것이며 따라서 勝景도 多壽하다 이와가치 山岳의讚美를 列擧하엿다고하자 그러나 아직도 說明할수업는 深遠한 靈感이숨어잇다

登山의計畫

登山은 一時的興奮과 熱奉한 態度로써行하면 안된다 確固한 計畫아래 實行에로옮겨야되는것이다 計畫을세운後에 添附할條件은 第一은『코ー스』、第二는 日數、第三은 參加者、第四는經費等이다

◇『코ー스』는 登山者의 體力과 人數 經費等의 綜合으로서 決定된다 學校에서 指導하는 登山으로서는『코ー스』는 學校에서 定하여 生徒에게 指示하는制度와 生徒가 立案하여學校의許可를 밧는 制度가잇다 以上에는 各各 長所와 短所가잇서서 具體的의것이 아니라고 可否를 말하기 어려우나 一般生徒의 自治訓練을 尊重하는 敎育方針이므로 生徒特히 山岳部委員이 製作하야 山岳部長의 修正을 거처서 敎職員會議에 提出한다 山岳部長은 이것을 會議席上에서 說明하여 諸先生의 意見을 拜聽한後『코ー스』를決定하는 制度도잇스며 一般登山者는『코ー스』를 製作하여 登山에 體驗이잇는者의 修正을거처서 實行할것이다

◇日數 는 될수잇는데까지 는짧은것이조타 그러타고 無理한 短縮으로因하여 危險性을 增大케하는일이잇다면 안된다 中等學校에서는 그저 一週間以內가 適當하며 一週以上이된다면 여러가지點으로 不安이 따르게된다 그리고 種類로서도 一週間 五日乃至三日 一夜零의 三種類가 잇서서 各自가 할수 잇도록하는 것이適當하다 그러고『코ー스』를길게잡지 아니하여 알맛게 日數를 短縮하면 안된다 오히려 一日동안의 行程을 二日間으로 配定하는 餘裕가잇는것이 조흘것이다 (未完)



脊髓病 手足麻痺骨筋麻痺痛 脊骨突出 龜의背와如히

兵庫縣明石市中町 太平堂製藥社

五萬足限り優良ボックス皮製革靴最後の大特賣

御注文は御手紙に足型及足袋文數明記の上御申越下さればお代金引替にて御送りします

青年訓練用總革靴 耐久本位 一足 九圓七十錢

學生向總革靴 鬼三枚底

紳士禮服用 高級總革靴 鬼三枚短靴 一足 九圓十錢 鬼三枚編上靴 一足 九圓八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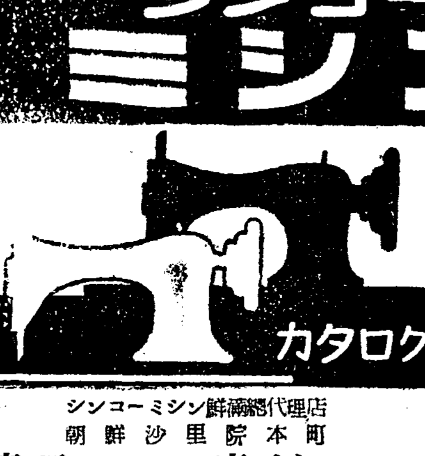
流行尖端 總革フレンチ型 深型靴 十一圓八十錢 短靴型 九圓八十錢

フレンチ型編上靴 九圓七十錢 フレンチ型短靴 九圓二十錢

名古屋市千種區上本町 合資會社 金城商會販賣部 電話千種 一七八三番 一七八四番 (振替名古屋一七六)

萬國標準型 シンコーミシン

鮮滿各地分店募集



カタログ進呈

シンコーミシン鮮滿總代理店 朝鮮沙里院本町 (東亞ミシン商會) 電四〇四

藥으로 滋味나 돈모으기

製藥士 養成講義

무슨藥이라도 自由로製造

◇立身成功의門

入學案內 無代進呈

日本通信製藥學校 東京市・芝區・新橋・六ノ四八

四千年朝鮮史上의偉賢總登場!

文化朝鮮의傳統과核心이躍如!!

一回配本

朝鮮名人傳

第一卷

偉大한生涯와思想의貯水池

그時代를빗내든巨人의자욱!!

朝鮮出版文化의第一線에 서서 꾸준한 活躍을하고잇는 本社出版部에서는 이번다시 全三卷의『朝鮮名人傳』을 發刊하여 滿天下讀書界의 人氣를 한몸에 모흐게되엇다 이『名人傳』은 四千年朝鮮史上에잇서서 그時代를빗내던 百餘名巨人偉傑들의 生涯와 事蹟을쓴것이니 實로文化朝鮮의 傳統과 核心이이冊에 躍動하고잇다 그리고 이冊이야말로 朝鮮名賢들의 生活과 思想을말하는 偉大한 貯水池가아니면 아닐것이다 朝鮮을모르고 朝鮮의傳統을모르는 사람들ー다시말하면 나폴레온이나 톨스토이나 넬손이나 빠이론이나 이러한 西洋名人들은 잘알면서도 東明王을모르고 乙支文德을모르고 元曉를모르고 牧隱을모르는 우리사람들은 반드시 이冊을아니볼수가업다 朝鮮智識에주리고 朝鮮學에 暗昧한사람들은 하루速히 이冊을보라。

(一卷은八月一日發賣)

『目次內容』

乙巴素 金庠基 / 紐由 金庠基 / 于勒 安自山 / 率居 李如星 / 平岡公主 文一平 / 乙支文德 金庠基 / 元曉 金映遂 / 渤海太祖高王 金庠基 / 薛聰 李丙燾 / 月明師 李秉岐 / 金大城 高裕燮 / 張保皐 金庠基 / 崔致遠 車相瓚 / 姜邯贊 金庠基

一然 金庠基 / 鄭夢周 金庠基 / 世宗大王 李丙燾 / 安堅 高裕燮 / 朴閭 車相瓚 / 崔世珍 崔鉉培 / 李賢輔 趙潤濟 / 李浚慶 申奭鎬 / 李珥 黃義敦 / 鄭澈 趙潤濟 / 許俊 李能和 / 金萬重 金台俊 / 尹拯 金瑗根 / 丁茶山 李昇圭 (以上)

萬人必讀書

讀書界의名篇

世專校長 吳兢善

여러가지로 朝鮮文化를 위하여活躍하는 貴社에서 이번다시『朝鮮名人傳』이라는 全三卷의 冊을 刊行하시니 實로 祝賀치안흘수가업습니다 더구나이번『名人傳』은 四千年間 朝鮮史上에 나타난 名賢偉傑、百餘名을 擇하여 冊을만드섯스니이冊이야말로 우리文化의 源泉이오 核心이아닐수업습니다。그리고 우리의傳統과 우리의情調가 躍動하고잇지안흘수가업습니다。나는 이冊속에 풀렌온이니 쉑스피어니 누구니하며 西洋崇拜에 中毒된사람들은 朝鮮에도이러한 名賢이잇다는것을 알어야하겟습니다。이런冊을 읽는것은 自己의祖先과 自己의背景과自己의 遺產을 몰으며 따라서 自己의傳統을아는經由이되는無知를 면할수가 잇습니다 大學을 卒業하고도 朝鮮사람으로 朝鮮의偉人을 몰으는사람은 速히이冊을보라고 勸하고 십습니다 云云

四六版四百六十餘頁 純白最高白揚紙使用金字入 洋裝豪華本

一冊 定價一、三〇 (送料二五)(前日本社圖書目錄에 一圓으로廣告한것은 訂正함)

三冊一時拂 三、九〇 (送料本社負擔)

京城太平通一丁目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番

本社發行 名著案內

現代朝鮮文學全集 短篇集(上) 一、二〇 (送料二十錢)

〃 短篇集(中) 〃 〃

〃 短篇集(下) 〃 〃

〃 詩歌集 〃 〃

〃 戱曲集 〃 〃

〃 評論集 〃 〃

〃 隨筆紀行集 〃 〃

長篇小說 愛慾의彼岸 一、五〇 (送料一七)

〃 그의自敍傳 一、三〇 (送料一五)

現代朝鮮女流文學選集 一、〇〇 (送料一九)

世界童話傑作集 八〇 (送料〇六)

結核豫防讀本 七〇 (送料〇六)

新選文學全集 文學讀本 一、二〇 (送料二三)

〃 新人短篇傑作集 〃 〃

〃 朝鮮兒童文學集 〃 〃

〃 女流短篇傑作集 〃 〃

朝鮮家庭醫學全書 三、五〇 (送料三〇)

朝鮮野談全集一卷 一、五〇 (送料二五)

〃 二卷

朝鮮野談全集 三卷 〃 〃

朝鮮名人傳 全三卷 七月一日부터 發賣

十月一日부터는朝鮮出版界가생긴후처음되는大名篇『林巨正傳』을 내게되엇다 滿天下讀者는期待하라